

02. 2월 + 0월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 03



12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들어서면서 평소
멀고 높아만 보이던 문화예술 공연이
이제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52



누군가가 문학 속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조곤조곤 시를 읽어주고
소설가의 집필 후일담을 들려준다면
이보다 달콤하고 편안하고 짜릿할 수
있을까.

74

입김을 불어 전등을 켤 수 있게 하고,
빛을 물감처럼 섞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에게 오감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줄, 이전에 없던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강슬기를 만나본다.



COVER STORY

뽀족뽀족한 천막이 눈에 띄면 아련한
향수에 젖는다.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는
작은 추억들이 놓다랄고 뽀족한 그곳과
만나 되살아난다. 개관 5주년을 맞은
서울열린극장 창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
그리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바로 잡습니다

2월호 표지 및 12~15p에 사용된 사진은 김호근 작가가 촬영한 것입니다.

Contents

- 02 IMAGE SEOUL 서울열린극장 창동
- 06 CULTURAL NEWS 3월의 공연전시 소식
- 10 COLUMN 천 원의 행복

3월의 문화+서울

- 12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 엔진의 중심으로...
- 18 서울열린극장 창동 극장장 김윤식 인터뷰
- 22 천막 하나로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빅툼 시어터의 매력

다시 보는 서울

- 28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 씨, 유람 버스에 오르다
- 36 6人6色의 서울 리서치 도시와 소리 - 서울을 무대로 한 영화에서

지금 서울은

- 44 HOT SKETCH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리메이크 열전 - 동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 52 HOT SKETCH 조곤조곤 들려주는 문학의 목소리 -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 58 EMERGING SPACE 청담동 골목길에서 유럽의 문화예술을 만나다 - 디갤러리 서울(DIE GALERIE SEOUL)
- 64 문화를 나누는 손 나눔을 공감의 문화로 만들다 - 한국콜마 대표이사 윤동한 인터뷰

사람과 사람

- 68 FOCUS INTERVIEW 창단 40주년 맞은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 74 YOUNG ARTIST 2009 세상에서 유일한 경험을 만드는 남자 -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강슬기

서울 안과 밖

- 80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벽화와 가림막의 숨겨진 마법 - 유럽의 공공 미술
- 84 I AM SEOULITE Diverse City
- 86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서울을 위하여 | 클라리넷과 12만 원
- 88 문화 캘린더
- 90 재단소식
- 95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3월 2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김영철, 김태혁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손승현, 한금선, 정강, 천현정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서울 어린이극장
극장



높다랗고, 뽀족한 그곳에
신기하게도 빛이 반짝인다.
우린 어디로 가는 거지?
궁금함에, 신기한 빛에
이리저리 이리저리...



검은 커튼 안으로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선다.



파란 바다가 옆으로 우뚝 서 있고,
 눈앞엔 검은 바다가 펼쳐진다.
 어느새 검은 바다 환한 하늘로 열린다.
 친구들은 사라지고,
 나 홀로.
 빛으로 가득한 우주.
 하얀 눈과 함께 찾아온 천사들과의 멋진 여행이 시작된다.

아 저기 짱구다! 와 와와 와…….

영화계와 무용계 두 슈퍼스타의 인상적인 듀엣

질리에트 비노슈와 아크람 칸의 <in-i>



<잉글리쉬 페이션트>, <세가지 색: 블루>, <프라하의 봄>, <퐁네프의 연인들> 등 주옥같은 영화 속에서 신비롭고 순수한 매력을 발산하며 프랑스 최고의 여배우로 인정받은 질리에트 비노슈(Juliette Binoche)가 세계 무용계의 떠오르는 안무가 아크람 칸(Akram Khan)과 손을 잡고 은막을 벗어나 무대 위에 선다. 아크람 칸은 지난 2006년 금세기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실비 길렘(Sylvie Guillem)과 함께 작품 <신성한 괴물들 (Sacred Monsters)>로 내한해 무용수로서의 경이로운 재능과 예술가로서의 진솔함을 선보이며 국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국 출신의 안무가. 세계 곳곳의 많은 영화 팬과 무용 관객들을 몰고 다니는 이들 두 예술가가 2인무 <인-아이(in-i)>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일정 2009. 3.19~21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및 예매 (02)2005-0114

대형오페라들의 봄맞이 향연

1 이탈리아 4대 극장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 내한 공연 푸치니의 명작 오페라 <나비부인>

오페라의 종주국인 이탈리아에서 4대 극장으로 손꼽히는 명문 극장,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의 첫 내한 공연이 오는 3월 12일(목)부터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푸치니의 명작 오페라 <나비부인>을 선보인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탈리아 출신 주역 가수와 합창단, 현지 스태프가 참여하며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출가 줄리오 치아바티(Giulio Ciabatti), 유명 무대디자이너인 피에르 파울로 비스레리(Pier Palo Bisleri)가 비디오아트와 접목할 예정이다. 여주인공 나비부인 역은 파바로티 국제콩쿠르와 푸치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오페라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라파엘라 안젤레티(Raffaella Angeletti)가 맡는다.

일정 2009.3.12~15 시간 평일 19:30, 토·일요일 17:00(총 4회)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및 예매 인터파크 ENT / 세종인포삼 1544-1887



2 2009 오페라극장 재개관 기념 월드 클래식 무대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의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재개관 기념 무대에 오른다. 3월 6일부터 14일까지 다섯 차례 막이 오르게 될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명장 반열에 오른 천재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커(David McVicar)와 영국 전통의 로열오페라하우스가 다시 한 번 명품비를 이룬 작품으로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가 야심 차게 제작한 화제의 신작이다. 세계 무대에서 유감없이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소프라노 신영옥이 수잔나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한국인 바리톤 주역 가수로는 처음으로 데뷔한 윤형이 백작을, 탁월한 음악성과 노련한 연기로 스타 탄생을 예고한 바리톤 조르지오 카오두로(Giorgio Caoduro)가 피가로로 합류한다.

일정 2009. 3.6, 3.8, 3.10, 3.12, 3.14 시간 평일 19:30 / 일요일 15:00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및 예매 예술의전당 (02)580-1300 / 티켓링크 1588-7890 / 인터파크 1544-1555

3 모차르트 사이클 시리즈, 두 번째 작품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하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가 오는 3월 10일~15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국립오페라단이 지난해 말 무대에 올린 <피가로의 결혼>에 이은 '모차르트 사이클 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독일에서 인정받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가 요하네스 슈테르트의 지휘에 마이클 애쉬먼이 연출을 맡고, 오페라 <살로메>로 극찬을 받은 바 있는 무대 및 의상디자이너 코너 머피가 이번 공연을 위해 다시 한 번 내한한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만든 마지막 오페라로, 일반적인 오페라가 모두 노래로만 이뤄진 것과 달리, 가사와 성악으로 구성된 악극에 가까운 징슈필 오페라의 대표 작품이다. 밤의 여왕 아리아를 들려줄 성악가로는 폴란드 출신의 소프라노 카타르지나 돈달스카와 한국의 신예 김성혜가 낙점됐다. 이 밖에도 자바의 왕자 타미노役に 테너 박성근 · 이승목,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役に 소프라노 임수주 · 이상은 등이 캐스팅됐다. 2008 <살로메> 공연 때 국립오페라단과 호흡을 맞췄던 TMF양상들이 연주하고 합창은 국립합창단이 맡는다.

일정 2009. 3.10~15 시간 평일 19:30 / 토요일 15:00~19:30 / 일요일 15:00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및 예매 (02)586-5282

서울시 아트펜스 3월 개장 예정

서울시청사 공사 가림막
시민을 위한 예술 무대로 변신

서울시 시청사 신축 공사 가림막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본관 청사 공사 가림막을 외벽 보존 지지대와 연중 상설 공연 무대, 최첨단 전광판, 시청 건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 등을 갖춘 길이 126m, 높이 25.6m의 다목적 아트펜스(Art Fence)로 만들 계획이다. 상설 무대는 댄스, 국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의 등용 무대로 활용되며,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 무대로도 쓰이게 된다. 전광판은 전면 중앙 부분에 설치되며 시민들이 만든 UCC, 포토에세이, 영상편지 등 다채로운 끼를 부담 없이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서울을 찾은 해외 거장들

1



2009 <구스타브 클림트 한국 전시>

클림트 황금빛 비밀

황금빛 비밀의 주인공 <구스타브 클림트 한국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유화 30여 점, 드로잉 및 포스터 원본 70여 점, 베토벤프리즈 및 작가 스페셜 인스톨레이션 등 클림트의 대표 작품 총 10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클림트 단독전은 클림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베데레 미술관(Belvedere Museum)을 시작으로 세계 11개국 20여 개의 미술관이 작품 대여에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개인 컬렉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다.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이 작품 관리 차원에서 2009년 한국 전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클림트 작품을 외국에 전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아시아 최초의 '21세기 마지막 전시'로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이라는 부제 아래 평생을 '사랑'이라는 테마 아래 예술과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던 클림트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는 물론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정 2009. 2. 2~5.15 시간 11:00~19:00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

프랑스 국립 풍피두센터 특별전

<화가들의 천국>

일정 2008. 11. 22~2009. 3. 22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3F

국립 조르주 풍피두센터 특별전 - <화가들의 천국>은 서양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아르카이다'라는 개념을 주제로 하여 20세기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천국의 이미지'가 현대적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어왔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신화와 역사, 문학과와의 관계를 통해 심도 있게 엮은 기획전이다.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풍피두센터 대표 소장품 79점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풍피두센터 현대미술관의 수석 학예연구관인 디디에 오텅제(Didier Ottinger)가 기획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전시 구성은 '황금시대', '아르카디아', '풍요', '허무', '즐거움', '메신저', '조화', '암흑', '되찾은 아르카디아', '풀밭 위의 점심식사' 등 총 10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현대 작가들의 눈에 비친 서양의 낙원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피카소, 마티스, 사갈, 미로 등 20세기 대표 작가들부터 이브 클라인, 게리 힐 등 동시대 미술가들에 이르는 최고의 현대 미술가 39명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서양 문화에 나타난 정신적 흐름의 변화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화려하고 극적인 화면 위로 넘쳐흐르는 역동의 미학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일정 2008. 12.10~2009. 3.13 시간 10:00~19: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 미술관본관 1

문의 및 예매 1544-4594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Rebens, Baroque Masterpieces)〉은 바로크 미술의 집대성인 동시에 그 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화가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의 작품 세계와 더불어 그의 제자들, 그리고 동시대를 장식했던 작가들의 다양한 걸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로크 회화전이다.

총 75점에 이르는 바로크 회화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안토니스 반 다이크, 야콥 반 루이스달 등과 같은 완숙의 경지에 이른 플랑드르 작가들의 걸출한 작품들을 비롯해,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를 아우르는 북부 네덜란드의 개혁적인 시민 예술 작품들을 소개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19점에 달하는 루벤스의 작품들이 전시의 중심축을 이루며, 시대를 초월하여 유럽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로크 거장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은 루벤스의 탁월한 예술가적 면모와 함께 동시대 작가들이 이룩해낸 예술 세계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플랑드르 미술과 북부 네덜란드의 미술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인디다큐페스티발 2009〉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estival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다큐인들을 위한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다큐멘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제작된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결산과 동시에 우수 독립다큐멘터리 영화를 발굴하고 해외 다큐멘터리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써, 다큐멘터리 제작자 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독립다큐멘터리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다. 자세한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정 3.26~4.1 장소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 <http://www.sidof.org>

천 원의 행복

45만 원짜리 공연도 천 원짜리 공연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행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여유를 준다. 하지만 주머니가 얇아질수록 모든 게 사치가 되어버린다. 어려울수록 꿈과 희망이 소중한듯, 천 원의 행복이 절실한 요즘이다.

글 | 김주호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및 동 대학원, 런던 시티 유니버시티(London City University)의 대학원에서 예술경영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예술의전당에서 극장경영에 종사한 이래 LG아트센터 운영국장을 거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향 대표로 있다.

저서 《예술경영》 2002년 김영사

역서 《Music Business Handbook》 1998년 도서출판 시유시

다른 각도에서 극장을 들여다보자

극장의 입장권은 일종의 자릿값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구경을 하는가에 따라 값도 달라진다. 지난해 한 교향악단 공연의 자릿값이 45만 원을 기록한 일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즉각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연장은 만원이었다. 분명 우리 사회에 그런 예술 상품의 시장이 존재하고 소비자가 있다는 예증이었다. 그런가 하면 '천 원의 행복'이란 부제(副題)로 단돈 천 원을 받는 공연도 있었다. 어떤 선택이 더 행복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무대 그리고 관객이 함께 존재해야 비로소 성립된다. 따라서 관객은 소비자이자 생산에 동참해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자로도 볼 수 있다. 상품의 속성으로 본다면 공연예술은 현장에서 경험한 후에만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다.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면 성공한 투자일 것이고 아쉬움이 남았다면 본전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일상을 벗어나 판타지를 경험하고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마음속에 남을 때 관객들의 포트폴리오는 풍성해진다.

얼마 전 조사를 보니 우리나라의 약 637개 공연장 중, 반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건립하고 운영한다고 한다. 한때 하드웨어의 공급 과잉이라 하여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소프트웨어 공급이 원활하고 활용도가 높기만 하다면 극장은 방방곡곡 필요한 시설이다. 뛰어난 예술가와 열성적인 관객이 동참하여 만드는 공연도 무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에게는 편안한 환경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세금으로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천 원의 행복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문화는 이제 사회복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극장을 단순히 예술 진흥의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대의 극장은 그 자체가 교실이고 공원이며 사람들이 만나 담소하는 사랑방으로 기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급적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에 따라 담는 그릇이 다르듯이 공연에 따라 그리고 관객의 성향에 따라 극장도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종로 3가 주변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노인들을 위한 전용공연장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상시로 한다면 무작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분들께는 즐거운 일이 아닐까? 20년 후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어찌 그뿐인가. 무거운 책가방에 짓눌려 사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극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화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때문이다.

경제가 기침을 하면 공연장은 독감에 걸린다. 객석에는 불이 꺼지고 무대는 황량하게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 10년 전에도 우리는 짧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극장은 꿈의 공간이다. 어려운 현실이 깊어질수록 꿈과 희망이 더욱 소중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요즘, 극장은 더욱 할 일이 많아져야 한다.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후끈한 감동을 선사하고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보니 대학로에 여전히 공연이 올라가고 머지않아 명동에 국립극장이 다시 문을 연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천 원의 행복. 그것은 생각만 해도 뿌듯한 일이다.

3월의 문화+서울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 엔진의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마지막 날 2009년 천 원의 행복 타악 창작 그룹 '공명'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관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 소중한 시간의 중심에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있었다. 이날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전체 좌석(879석)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임시 좌석까지 들어찬 관객들은 1시간 30분 동안 타악기의 현란한 울림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도봉구 창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 소외 지역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들어서면서 평소 멀고 높아만 보이던 문화예술 공연이 이제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울 열린극장 창동

문화 불모지에서 문화 엔진의



중심으로...

3월의 문화+서울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 엔진의
중심으로...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적 소통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개관 5년을 앞두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동북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가슴속 깊이 묻혀 있던 감성을 일깨우며 주민들에게 폭넓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시립운동장 1만㎡ 부지에 호주에서 제작해온 특수 천과 킥폴이라고 불리는 6개의 주기둥을 중심으로 지어진 주 텐트는 무대 설비와 장비 등이 있는 후무대와 높이 11m의 대형 무대로 만든 텐트형 공연장으로 카펫이 깔린 총 879석의 객석과 최고의 음향 및 조명 시스템을 비롯해 로비, 어린이 놀이방, 수유실, 주차장, 티켓박스, 냉난방 설비 등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 공연장 설립을 계기로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양질의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를 통한 삶의 질 고양을 목표로 서울을 대표하고, 동북부 지역 시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가꾸기 위





해 시민 중심의 공연을 지향하고 지역 문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 네트워킹 형성을 추구해왔다. 특히 개관 이후, 서울 시내 및 강남권에 치우쳤던 공연장의 지역적인 차별화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중적인 공연을 비롯하여 순수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로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예술의 장(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쉼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자질을 높이고 다채롭고 참신한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술의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곳이 바로 서울열린극장 창동인 것이다.

교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 소통의 공간,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지난 4년간 진행한 사업들을 보면 미래의 관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연 위주로 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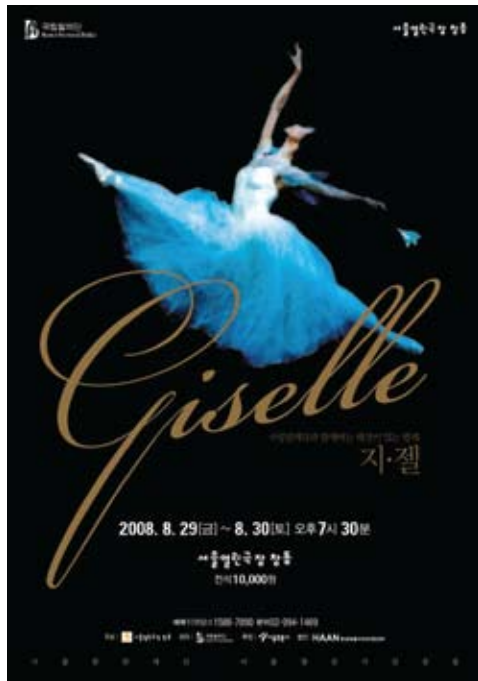
쉽게 접하기 힘든 오페라, 발레 공연을 해설과 함께하는 공연 시리즈를 자체 기획하고,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해 뮤지컬 페스티벌과 같은 축제 및 클래식, 뮤지컬,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무용, 오페라를 해설이 있는 시리즈로 올린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호수>, <지젤>'을 비롯 국립오페라단의 <루치아>, <라보엠>의 공연 무대는 전회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갈증을 해소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올리는 자체 기획 공연에 관객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파격적인 관람료에 대형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서는 양질의 공연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8만~10만 원을 지불해야 볼 수 있던 발레, 오페라단 공연을 이곳에서는 반에 반값도 안되는 1만~2만 원의 파격적인 초저가에 관람할 수 있다. 여기에 극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만 해도 기본

3월의 문화+서울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 엔진의
중심으로...



20% 할인까지 해주므로 관객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문화를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의 경우 2008년 2회 공연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운 뒤 이 같은 좋은 공연을 더 많이 올려달라는 관객들의 요청이 빗발쳐 올해부터 총 6회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티켓도 1만 원으로 저렴한데 예매한 모든 관객에게 빵과 커피까지 공짜로 제공하니 어찌 사랑받지 않겠는가?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오전 11시에 주부들만의 편안한 시간과 여유를 만끽하는 인기 만점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모두 관객을 배려하는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해설이 있는 발레, 오페라 시리즈 및 브런치 콘서트 같은 공연들은 이처럼 그동안 문화에 목마른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문화 공간’, ‘문화의 장’으로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서울문화재단의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인 나트(NaT)의 심사공간 제공 및 무대

인력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나트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작품이 기획 단계를 거쳐 실제 공연되는 과정과 그 가능성을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 검증받는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예술가들에게 400만 원 내외의 쇼케이스 준비 지원금을 사전 지급해 실연 심사에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때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공연장 대관 및 무대 전문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력은 있으나 열정과 기획력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 해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지역의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서울시민과 동북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의 중심이며, 문화적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객들이 능동적인 문화 주체로서 공연에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내가 찾아가는 공연장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찾아오는 공연장’이란 슬로건으로 시작된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5년간 걸어온 길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시간이었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이 100%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춘 명품 극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친근한 공연장으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 같은 극장이 되었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자체 공연기획

을 바탕으로 지역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공간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2004년 개관 이후 문화예술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지원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

문화란 경험한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삶 속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서울을 꿈꾸며, 언제나 활짝 열린 공간이 되고자 하는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문화 엔진의 중심으로서 동북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을 향한 문화 전도를 목표로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글 | 김병수

(서울열린극장 창동 홍보담당)



3월의 문화+서울
서울열린극장 창동
극장장 김윤식 인터뷰

“지역 주민이 문화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서울 열린극장 창동 극장장 김윤식 인터뷰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나눔과 창작 공간 지원을 위해 건립된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았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그동안 천막 극장이라는 독특함과 더불어 가족 단위의 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해서 주목받았다. 그 무엇보다 ‘문화=행복’이라는 등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오늘을 김윤식 극장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다.

서울의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창동. 지하철 창동 역에서 10분쯤 걸음을 옮기면, 원뿔 모양의 큰 천막이 눈에 들어온다.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천막 극장,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어린 시절 동네에 가끔 들르곤 했던 서커스단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인지 극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웬지 설렌다.

막상 극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그 옛날 서커스단의 극장보다 훨씬 견고해 보였다. 천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콘크리트 건물 안처럼 포근했다. 극장 입구며, 공연장 내부 시설도 기존의 여느 공연장 못지않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예전의 추억을 현재로 옮겨놓은 것 같다.

화요일 오후 2시. 공연이 없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극장은 한적했다. 그렇지만 연중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뽁뽁한 공연 일정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04년 개관한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현재 <짱구는 못말려> 라는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 중이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그간 다양하면서도 관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아왔다. 그중 <천 원의 행복>,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등의 기획 공연은 매년 매진을 기록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도 국립 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나, 국립 오페라단 주역 배우들의 콘서트, 인기 뮤지컬,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

이 열렸다. 주로 관객에게 친숙한 공연을 시도하지만, 편식하지는 않는다. <모던 프로젝트>라는 다소 난해한 현대 무용 장르도 무대에 올랐다.

적정한 티켓 가격에 천막 극장이라는 매력까지 -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매력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아마도 저렴한 티켓 가격일 것이다. 김윤식 극장장은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역할이 ‘문화 나눔’과 ‘창작 공간 지원’이라고 말하며, 적정한 티켓 가격은 그 두 가지 기능 중 ‘문화 나눔’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저희 극장의 공연 티켓 가격이 낮은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문을 열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관객들의 경제적 여건, 공연의 질 등의 접점을 찾아 적정한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티켓 가격이 서울열린극장 창동에 대해 관객이 느끼는 만족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김 극장장은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공연을 해야 관객이 찾습니다. 저렴한 티켓 가격과 좋은 공연 유치.

3월의 문화+서울
서울열린극장 창동
극장장 김윤식 인터뷰

이 두 가지가 들어맞았을 때, 비로소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외에도 천막 극장이라는 외형적인 특성이 관객의 발길을 붙잡는 데 한몫을 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도봉구에서 지정한 10대 명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천막 극장이 생길 때에는 창동에 계속 자리 잡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한다.

“사실 천막 극장의 매력은 ‘이동식’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여러 군데 옮겨 다닐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동 경비가 너무 비싸고, 요즘 지역마다 극장이 많이 생겨 사실상 문화 소외 지역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원래의 매력을 못 살리는 게 아쉽지요.”

천막 극장이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점도 있다. 외부 소음에 약하다는 점과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두 문제점은 모두 냉난방 시스템 때문이지만 예전에는 그저 바람막이 정도일 뿐이던 천막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천막 극장이다보니 냉난방 소음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연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요. 전기로 부담도 커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고정 건물이 아니니 어쩔 수 없죠.”

관객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장르까지 끌어안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동북부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큰 몫을 한 것은 늘 매진을 기록하는 고정 프로그램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는 서울시의 여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 년에 두 번 열렸습니다. 첫 공연은 매진이 되지 않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두 번째 공연부터 매진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클래식 음악 공연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택가의 주부를 관객으로 삼았던 게 주요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낮은 가격과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 것도 주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였고요. 지난 1월 공연도 매진됐습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는 지역 주민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연 6회로 공연 횟수가 늘어났다. 1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다과까지 제공하면 사실 손해 보는 공연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하는 의미가 크다. <천 원의 행복>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7일 열린 <천 원의 행복>에서는 창작 타악 그룹 ‘공명’이 무대에 올랐다. 매진도 모자라 임시 좌석까지 준비할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다.

그 외의 프로그램도 철저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기획한다.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국립오페라단의 해설이 있는 오페라, 국립합창단의 해설이 있는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한다.

페라단 주역 가수들의 무대 등이 이런 차원에서 기획된 공연이다. 또한 가족들이 모두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도 자주 공연한다.

“이곳 주택가의 주민들은 주로 30,40대 중산층 신혼부부들, 자녀를 둔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저희의 타깃이지요. 또한 이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잠재 고객이기도 합니다. 해설이 있는 발레나 어린이 뮤지컬 같은 공연들은 이들에게 공연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기획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다가 가면 안 되지요.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은 객석 점유율이 70~80%를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모던 프로젝트>가 개관 4주년 기념 공연이었다는 점은 조금 의외다. 현대 무용은 사실 일반 관객들에게는 난해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느 공연에 비해 객석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그런데도 이 공연을 개관 4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한 편식을 없애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현대 무용은 편식되는 장르입니다. 우리 극장을 찾는 관객들도 현대 무용을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객석이 많이 빈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아직도 (이러한 장르에 대한)벽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술가 지원 차원에서입니다. 말씀 드렸드시피 저희 극장은 ‘문화 나눔’과 함께 ‘창작 공간 지원’ 임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율에 상관없이 예술가 지원에 의의를 두고 기획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관객은 아직 현대 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 낯가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는 못했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의도

자체를 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게 김 극장장의 생각이다.

앞으로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발걸음은 현재와 연장선상에 있다. 연간 6회로 예정된 브런치 콘서트가 5회 남았고, 해설이 있는 공연과 어린이 뮤지컬도 여전히 기획 중이다. 작년 뮤지컬 <그리스>가 공연된 데 이어 올해도 명품 뮤지컬이라는 이름으로 뮤지컬을 한두 편 정도 올릴 계획이며,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콘서트도 계획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다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점. 천막 극장이 아니라 기존의 정식 건물과 같은 극장으로 재건축할 것을 고려 중이다. 아쉽긴 하지만 관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외형 면에서는 지금과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과 다른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관객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 극장의 목표는 언제나 지역 시민이 문화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라는 김 극장장의 말처럼 언제나 지역 주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극장이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취재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3월의 문화+서울
천막 하나로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빅톱 시어터의 매력

Big

천막 하나로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빅톱 시어터의 매력

판타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커다란 빅톱 시어터는 그 크기만큼이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하다. 꼭 멋지고 화려한 빅톱 시어터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네 정서가 담긴 서커스단의 작은 천막도 괜찮다. 아련한 추억이 담겨 있는 빅톱 시어터의 숨은 매력을 만나보자.

The



A low-angle, upward-looking photograph of a white sailboat. The mast and the edges of the sails are visible, creating a strong diagonal line across the frame. The background is a clear, vibrant blue sky. The text 't o p' is overlaid in a bold, yellow, sans-serif font.

t o p

a t r e

3월의 문화+서울

천막 하나로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빅톱 시어터의 매력

천막의 추억

6.25 전쟁이 끝나고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 볼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 전국 방방곡곡 공연을 다니는 서커스단이 동네 마을 공터에 자리 잡고 관을 벌이는 것이 단연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적지 않은 입장료를 받고 잘 훈련된 단원들이 연기하는 서커스만 전문으로 하는 공연단도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을 팔면서 슬쩍 눈요깃감으로 만담과 신파극, 서커스 공연을 끼워 넣은 알뜰한 상술의 삼류 공연단이 더 많았다. 하지만 세련되거나 허름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던가? 농번기가 끝나고 한적한 시골마을의 가설극장 안에는 까까머리와 치마저고리의 아이들, 농사일에 찌든 흙빛 얼굴의 부모들,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와 지팡이를 든 할머니 등 삼대가 모여 잠시나마 서커스 공연이 선사하는 아찔하고도 환상적인 세계에 빠져들었다. 현실과 판타지를 구별하는 것은 오로지 임시로 둘러친 텐트 한 겹, 그것도 가마니 아니면 광목천으로 덧대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안에서 서커스뿐 아니라 신(新)연극, 영화, 가수의 콘서트 등을 관람하며 도시 못지않게 문화예술을 향유한다 자부할 수 있었다.

천막 극장의 역사

고대 로마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덤블링, 저글링, 애크러배틱, 동물쇼, 마술, 막간극 등을 보여주는 곡예사들은 나름 개별적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 공연 프로그램 형태의 쇼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출발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된 현대적인 의미의 '서커스'다. 당시 흥행사들이 만든 서커스 공연은 쇼비즈니스의 첨병이자 영국 뮤지컬의 기본 레퍼토리로 선전했었고, 특히 땅이 광활한 미국의 흥행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커스를 투어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동식 가설 극장이 바로 천막 극장이었던 것이다.

서커스 역사에 의하면 최초의 천막 극장은 1825년 미국의 조슈아 퍼디 브라운이란 흥행사가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 텐트란 유목민들의 주거용이거나 생존을 위한 사냥 또는 군인들의 야영 등과 같은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용도로 쓰였지만, 조슈아가 개발한 대형 천막 극장의 등장으로 천막은 서커스 하면 떠오

태양의 서커스단의 <Alegria> 서울 공연 빅톱





1



2



3



4

1, 2, 3 빅톱 서커스 이미지 사진
4 기마 오페라 징가로(Zingaro)

르는 대표적인 극장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천막 극장은 이후 서커스의 흥망성쇠와는 별개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왔다. 서커스는 1960~1970년대에 전통적인 기교가 주는 재미로서는 한계에 다다랐고 서커스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권리가 이슈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한 부침을 겪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동물들을 빼고서야 비로소 서커스의 현대화를 이끈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가 큰 인기를 얻지만 천막 극장의 기본 아이디어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훨씬 기술적으로 진화한 빅톱(Big Top) 극장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천막 극장의 확산을 이끌었다. 현재 천막 극장은 서커스는 물론이고 콘서트, 뮤지컬, 연극, 종교 집회, 전시회, 마켓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며 진화 중이다.

천막 극장의 조건

천막 극장은 기동성이 뛰어나서 공터만 있다면 어디서나 공연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극장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유리하다. 특히 도심을 벗어나 공연장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해 관객들

은 낭만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좌석이 단층으로 구성돼 있고,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가 가까워 실감나는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 객석이 비슷한 일반 공연장 대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빅톱 극장의 설치·철거·임대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빅톱 시어터'(Big Top Theatre)라는 이름의 대형 이동식 가변극장이 소개된 바 있다. 주로 해외 투어 공연에서부터 대연나 국내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에 사용되어왔다.

빅톱 극장은 구조 면에서 일반 극장 설계 공법과는 다르다. 비닐하우스를 확대한 것 같은 반원의 트러스(심)를 연결해 만든 극장이 있는가 하면 <캣츠>나 태양의 서커스의 <퀴담>, <알레그리아>에서 보듯 중앙에 두 개의 킹폴(King Pole 중심 기둥)을 심고 그 주변을 트러스트들이 떠받치고 있는 극장도 있다. 대형 극장의 경우, 공연장 기능을 하는 주 천막 이외에도 분장실, 화장실, 머천다이즈 판매장 등의 부대시설도 필요하다. 텐트의 재료인 천은 완벽한 방염과 방수 기능과 폭염과 혹한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화재, 태풍과 같은 외부적인 천재지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월의 문화+서울
천막 하나로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빅톱 시어터의 매력

2003~2004년 국내 순회 공연을 한 <캣츠> 빅톱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신식 가설극장의 시대를 열었다. 2003년, 올림픽 공원 한얼광장에도 빅톱 극장을 세워 <둘리>, <페임>과 같은 뮤지컬 공연이 열렸으며, 2004년 서울 창동에 위치한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개관 이래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서울 동북부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존재의 위기 속에서도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으로서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동춘서커스단'도 지난해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 세운 빅톱에서 관객을 맞았다. 지난 연말, 극단 '미추'는 국산 빅톱 극장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구내에 세워 마당놀이 <심청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세계 천막 극장의 예



스피겔텐트

스피겔텐트 | 스피겔텐트(Spiegeltent)는 벨기에에서 1920년에 창단된 유서 깊은 유랑 극단으로 'The Famous Spiegeltent'라는 천막 극장에서 공연한다. 스피겔텐트란 말하자면 이동 공연장이다. 서커스단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반면, 스피겔텐트는 최

소 두세 달 정도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서커스, 연극, 음악 공연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공연 사이에는 카바레, 볼룸 댄스장이나 비어홀로 변신하는 등 성인 취향의 다양한 사교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스피겔텐트는 극장 안쪽의 인테리어가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벨벳 차양막, 고급 나무로 만들어진 마룻바닥, 아르누보 스타일의 샹들리에, 벽을 메운 거울 등은 특히 댄스홀로 변신할 때 유용하다. 1920년에 만들어진 벨기에의 스피겔텐트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데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큰 인기를 얻은 후 매년 여름 뉴욕 등 북미와 유럽을 순회하고 있다.

SMS 텐트 시어터 | 여타의 빅톱 극장이 주로 이동 서커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반면, SMS 텐트 시어터는 서커스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지역 커뮤니티에 깊숙이 뿌리박고 친화적인 레퍼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 미주리 스테이트(Southwest Missouri State) 대학에서 운영하는 SMS 텐트 시어터(Tent Theatre)는 1963년에 창단된 이래 매년 여름철에 텐트 극장을 세워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이 대학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캐슬린 터너를 비롯한 유명 배우들이 이 극장에서 주최한 연극 공연 무대에 서고 있다. 이 학교가 위치한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는 SMS 빅톱 시어터가 제공하는 우수한 프로그램 덕분에 이름이 알려졌다.

빅톱 샤타과 극장 | 미국에서 유랑 서커스 극단의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서커스 박물관도 있는 위스콘신 주의 최북단인 레이크 슈퍼리어 지역에 위치한 빅톱 샤타과(Big Top Chautauqua) 극장 역시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1960년 창설 이래 매년 여름 3개월간 텐트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르는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으로 다양하며 이 기간 동안 매주 1회씩 공연장의 라이브 실황을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 '텐트쇼 라

- 1 원현의 옥토버페스트
- 2 영국 서머셋의 배스 앤드 웨스트 축제
- 3 시드니의 천막 극장 하드 셀



디오'(Tent Show Radio)도 운영하고 있다. 이 극장은 특히 한여름밤에 텐트 바깥의 야외에서 선선한 바람과 자연경관을 함께 느끼며 이벤트를 즐기는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해결 과제와 미래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초속 50m의 강풍을 일으켜 당시 부산 벡스코 야외에서 공연 중이던, 초속 41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던 뮤지컬 <캣츠>의 빅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전회위복으로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안전 기능을 자랑하는 텐트가 설계되고 있다.

또한 빅톱 극장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음향 문제다. 빅톱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발전기, 가습기, 에어컨 등이 관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방형 프로시니엄 구조의 일반 극장에 비해 사방이 열린 빅톱은 상대적으로 음향 디자인이 까다롭다는 점도 단점이다. 공연장을 너무 자주 옮기면 이동 시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텐트를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빅톱 극장은 잦은 이동보다는 일정 기간 상주하며 지역에 맞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할 때 빛을 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를 소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연을 보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극장에서 보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빅톱이라는 형식이 주는 자유로움은 관객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고 일어나보니 길 떠나버린 공연이 주는 아스라함은 오로지 텐트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아련함일 테니까.

글 | 조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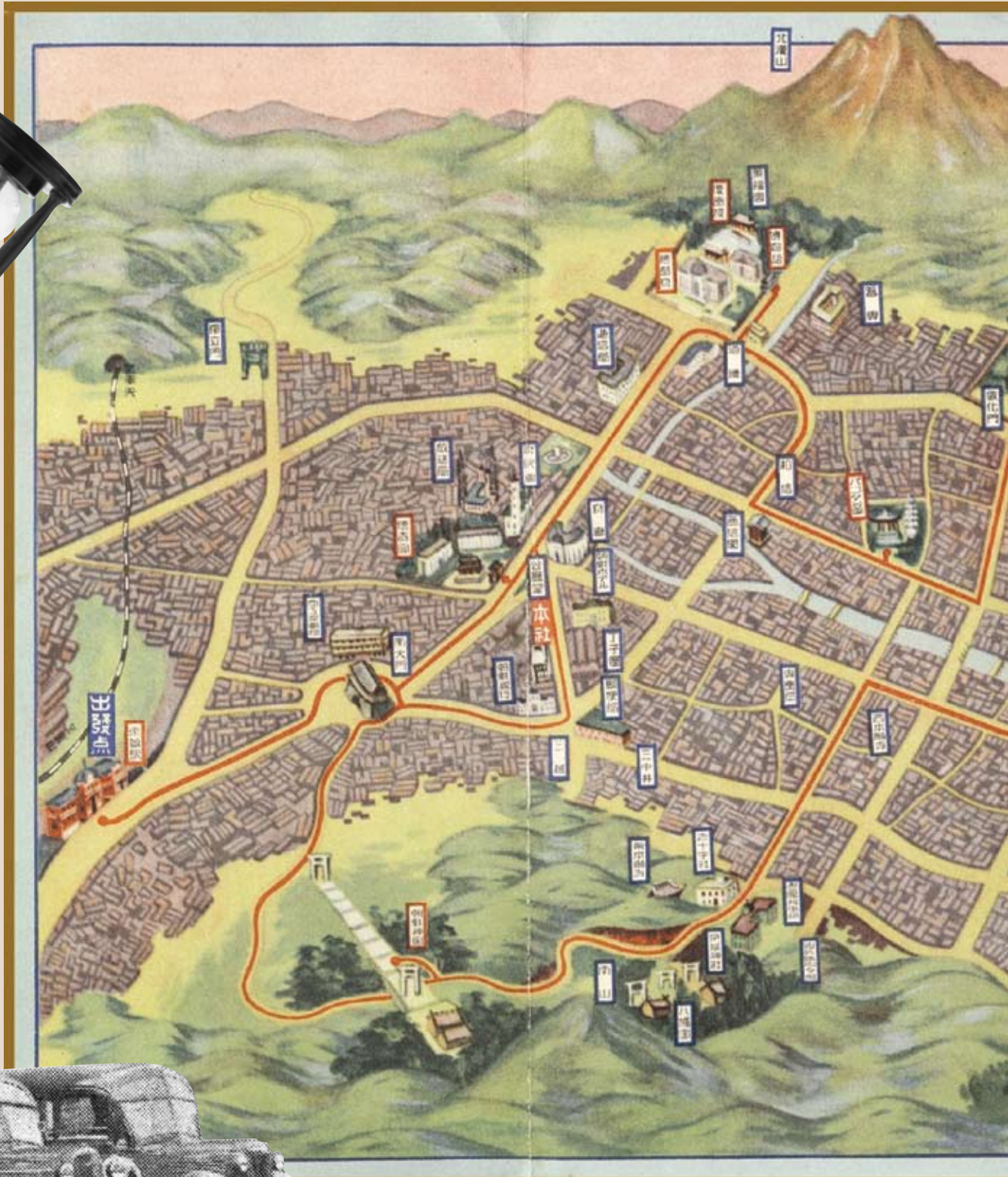
뮤지컬 개발 프로듀서, 뮤지컬 평론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 뉴욕시립대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술감독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설앤컴퍼니에서 R&D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설앤컴퍼니 제작감독, CJ 뮤지컬 쇼케이스 제작감독, 전문연 창작팩토리 뮤지컬 부문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뮤지컬 스토리>가 있다.

이경민의 경성 산책

생경한 근대 서울의 풍경소개와 함께 당시의 서울이 현대의 서울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를 돌아 본 꼭지는 3월~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 씨, 유럽 버스에 어피다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시티투어버스를 볼 때가 자주 있다. 서울 관광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2000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이 관광버스는 현재 도심 순환 코스와 고궁 코스 그리고 야간 코스로 나누어 운행되는데, 최근에 2층 버스를 도입하고 청계천변을 경유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 나들이를 위해 한 번쯤 타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시내관광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지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서울이 '경성'이라고 불리던 1929년의 일이다. 당시 경복궁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 주최의 조선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를 기회로 경성자동차조합에서 '시내 각소 유람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그 효시다. 이 유람자동차는 박람회를 구경하기 위해 경성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에 급증한 관광 특수를 잡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경성역 또는 지정 여관을 기점으로 하여 시내 명승고적, 남대문 외 23개소를 일주하는 데 4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요금은 성인이 3원 50전으로 매우 비쌌으나 5세 이하 소아는 무료, 6세 이상 12

세 이하 소아는 성인의 반액이었다. 또한 단체 할인도 있어서 20인 이상은 3원, 50인 이상은 2원 50전, 100인 이상은 2원이었다. 100명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을 정도였으면 박람회로 인한 관광 특수가 엄청났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유람자동차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운행된 임시 관광버스였으며, 정기적으로 운행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출현했다.



장곡천정(현 소공동) 경성자동차주식회사 앞에 세워져 있는 유람버스들



경성자동차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경성명승유람안내도



현재의 시티투어버스 노선도

1931년 경성자동차조합장이면서 경성자동차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노노무라 켄조는 박람회 당시 유람 버스의 사업성을 보고 그해 2월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 ‘경성유람버스’ 허가원을 제출했다. 지방 사람이나 외국인이 경성을 유람할 때 시내의 유명한 건물과 창경원, 신사, 백화점 등을 경성유람버스로 안내하기로 하고 동년 6월 22일부터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금의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전신이 되었다. 16인승이었던 이 유람버스는 매일 두 차례 오전 8시와 오후 1시에 운행을 시작했으며, 지금의 소공동 조선호텔 건너편에 위치했던 경성자동차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출발했다.

승객들은 ‘부인안내자’라고 불린 여성 차장(버스 걸)의 안내를 받으며 경성의 주요 명소를 구경할 수 있었다. 코스는 하차해서 구경하는 곳과 차를 타고 구경하는 곳으로 나누어서 켜며, 총 소요 시간은 3시간 반 내지 4시간 반 정도 걸렸다. 요금은 성인이 2원 20전, 소인이 1원 10원으로 당시 전차 요금이 3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돈이었다.

너도 나도 유람버스 나들이 간다

경성유람버스의 일주 코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성역에서 출발해 남대문을 지나 남산 중턱에 위치한 조선신궁과 경성신사를 거쳐 장충단과 막문사를 관람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동대문을 지나 경학원(성균관)과 창경원을 구경하고 파고다공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청사와 조선총독부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에 위치)을 관람한 다음 덕수궁을 최종점으로 유람을 마치게 된다. 이는 하차안내소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며, 각 지점을 이동하는 중간에도 보거나 구경할 수 있는 명소들이 여러 곳 있었다. 이러한 노선을 따라가다보면 경성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라도 경성의 전모를 한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눈에 볼 수 있고 그 지형을 그릴 수 있을 정도였다.

1927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수단은 경성전기회사와 자동차회사에서 각각 운영했던 전차와 택시만 존재했다. 그러다 1928년에 이르러 경성부청에서는 폭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전차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 부청에서 직영하는 부영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금세 제2의 대중교통수단이 된 부영버스는 점증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람버스 운행 계획도 마련했었다. 그러나 경성자동차주식회사에 선수를 빼앗기자 1932년 봄부터 일요일에만 운행하는 '일요일경성유람버스'를 직영하여 경성유람버스와 경쟁하기도 했다. 요금도 경성유람버스의 절반도 안 되는 50전으로 하였다. 그러나 부영버스는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난으로 1934년 경성전기회사로 넘어가고 만다.

한편 경성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유람버스가 잇따라 등장했으며 당지의 관광 명소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자동차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만큼 유람버스 운영은 수익성 높은 사업이기도 했다. 1931년 6월 온천이 많은 부산에서는 동래온천과 해운대온천을 왕래하는 '온천유람버스'를 고급 승용차 4대를 이용하여 매일 56회씩 운행했으며, 어느 곳보다도 문화유적들이 많은 평양에서도 1935년 유람버스 신설을 위해 평양관광협회에 관광객 수요 조사를 의뢰해 명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평양 못지않게 탐승객들이 많이 찾는 경주에서는 1937년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동차회사들을 모아 경주고적유람자동차주식회사를 창립하여 '경주유람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람버스들의 등장은 1930년대에 들어서 관광객들의 수요가 폭증했으며 그에 따른 관광사업도 번창했음을 반증한다.

유람코스로 도시의 상을 그리다

그런데 경성유람버스의 경우 조선인보다도 일본 내지인의 수요가 더 많았으며, 경성자동차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각종 관광 안내 팸플릿도 그들을 위해 제공되었다. 그런 이유로 유람버스에 대한 경험담이 일본인 중심으로 얘기되곤 했다. 1938년 <조선철도협회 회지>에는 일본인 두 명이 '경성유람버스의 승객이 되어' 보고 느낀 바를 기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기고한 바 있다. 이때 촬영한 기념사진에서 당시



경성유람버스의 운전수와 여차장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의 모습, 1938



조선 신궁, 1925년 건립

유람버스의 운전수와 여차장 그리고 신사복 차림의 일본인 관광객 모습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유람 코스 또한 처음부터 일본인을 위해 고려되었다. 1930년대의 경성은 일제가 경영해 근대화된 면모를 갖춘 식민지 조선의 수도로서 식민지배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곳이었다. 따라서 유람 코스는 단지 경성의 유명한 명소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장소들을 보고 지날 때마다 지배자 일본인 으로서의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길이었다. 이제 다시 위에서 언급한 유람 코스를 복기하면서 그 여정을 떠나가보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여행이 될 것이다.

‘경성역’에서 출발한 일본인들은 가장 먼저 경성의 랜드마크인 ‘남대문’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곳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입성할 때 지나간 역사적 유래가 깊은 기념비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동시에 1907년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 당시 통행 불편의 이유를 들어 남대문 북쪽 성벽을 철거했던 우월적 지배의식의 상징이었다. 그다음으로 들른 곳은 현 남산분수대 광장 자리에 세운 ‘조선신궁’이다. 국사당을 헐고 이 자리에 세운 조선신궁은 일본 황실의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 천황을 제신(祭神)하는 신사였으며, 신사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관폐대사(官幣大社)로 지어졌다. 이곳에서 경성 시가 쪽을 바라보면 정면에 조선총독부가 있어 조선 지배기구의 양대축을 이루는 상징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1911년 창경원으로 개칭된 창경궁

이어서 유람버스는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피살된 궁내부대신 이경식과 시위연대장 홍계훈 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쌓은 제단이었으나 1919년 일제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된 '장춘단'과 1932년 조선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혼업을 영구히 후세에 전하고 일본 불교 진흥 및 일본인과 조선인의 굳은 정신적 결합을 위해 세워졌다는 '박문사'를 둘러보게 한다. 또한 동대문을 지나 지금의 대학로를 따라 혜화문 방향으로 올라가면 1911년 성균관을 개편해 조선의 유럽들을 식민정책에 따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교화기관인 '경학원'과 1911년 창경궁을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으로 조성된 오락 공간으로 개조하고 일반에게 개방하면서 개칭한 '창경원'을 구경하게 된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인 '파고다공원'을 거쳐 조선 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청사'와 식민지 문화정책을 담당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관람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한 고종의 궁호인 '덕수'를 따서 원래의 이름인 경운궁을 개칭한 '덕수궁'에서 유람은 끝을 맺는다.

이렇게 일주하는 동안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제국시민으로서의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조선인 관광객들에게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내면화하며 일제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표상체제에 편입하도록 무의식적으로 강제한다. 근대성이 배태한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 경성유람버스의 코스를 철저히 계획하여 식민담론의 시각정치로 활용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경성유람버스의 노선이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코스와 많은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던 일제강점기의 관광객과 현재의



관광객들은 동일한 장소를 바라보면서 경성과 서울에 대해 각각 어떤 상을 그릴까? 투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저 서울의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해 왔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투어버스를 타게 된다면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장소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어왔는지 공간에 대한 역사 읽기를 함께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투어버스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표면과 감각 너무 깊이 있는 공간의 사유가 가능할 것이다. 공간의 계보학이라고 불려도 좋을 이 서울 유람에 동승해보지 않겠는가.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다시 보는 서울
6人 6色の 서울 리서치

6人 6色の 서울 리서치

본 꼭지는 서울을 구성하는 자연과 문화, 사람관계에 주목하여 서울을 읽어내는
6가지 이야기로 구성되며 3월~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도시와 소리

서울을 무대로 한 영화에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소리, 음악적 경관, 음악적 파노라마

글 | 인진성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시각정보디자인을 전공했다. 2007년 디자인리서치스쿨 1기로 활동했다.

*이 원고는 KT&G 상상마당 아카데미 디자인리서치학교 (Design Research School) 작업 결과물의 일부를 가공한 것입니다.

도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자. 회색 빌딩, 아파트, 거리에 뺑뺑이 들어선 자동차들,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시각적 풍경 이외에도 도시는 소리로 기억되기도 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지금도 도시는 소리를 만들고, 소리는 도시를 만든다.

과거의 도시는 어떤 소리를 냈을까? 이를테면 1960년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구도심의 거리를 거닐며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이 연구는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도시의 소리는 매 순간 공기의 파동으로 사라져버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던 중 내 시선을 잡아끈 것은 영화였다.

영화는 복잡한 도시의 기계음, 차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과장해 표현하곤 한다. 동시녹음 기술이 없었던 시절, 영화는 실제 사운드를 직접 녹음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일련의 효과음으로, 그러니까 음향효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리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영화들을 추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의 도시민들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과 가장 가깝다고 받아들이던 효과음은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우리에게 과거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상상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도시와 소리’는 서울을 무대로 한 과거 영화에서 도시의 소리를 추출해, 도시에 대한 청각적 경험을 복원해보는 작업이다.



023-028:
1964_명동에 밤이 오면_이형표



033-037:
1969_수학여행_유현목

001_경적_기차_00:05	
002_공장_방직공장_00:20	
003_기차_00:09	
004_균중_시위_00:22	
005_균중_호외신문_00:12	
006_비행기_전투기_00:10	
007_사이렌_경찰차_00:08	
008_장소_명동성당_종소리_00:18	
009_전차_00:10	
010_차소리_경적_00:48	
011_철도_건널목_00:20	
012_거리_차소리_경적_00:08	
013_경적_승용차_00:02	
014_사이렌_건널목_00:09	
015_사이렌_통행금지_00:11	
016_승용차_정지_문소리_00:11	
018_장소_다방_음악_대화_00:22	
019_화벨_어보세요_00:04	
020_차소리_경적_00:13	
021_초인종_대문_00:06	
022_피아노_00:06	
023_경적_버스_00:11	
024_버스_문소리_출발_00:20	
025_승용차_문소리_출발_00:21	
026_장소_공항_00:07	
027_장소_명동_00:19	
028_전화벨_00:07	
029_길_차소리_00:11	
030_장소_맥주집_노래_균중_01:15	

1960-

- 004-011: 1961_오발탄_유현목
012-022: 1963_새엄마_강대진
029-030: 1966_여정_강찬우
031-032: 1968_고독한 순간_남상진
038: 1969_신세 좀 지자구요_임권택



001-003:
1960_하녀_김기영



045-047:

1974_별들의 고향_이장호

031_뉴스_라디오 뉴스_00:22	
032_전화벨_00:12	
033_경적_기차_00:02	
034_기차_00:05	033_경적_기차_00:02
	035_안내방송_기차_00:09
037_정소_서울역 앞 차 소리_00:12	036_어린이_성우_00:06
038_길 차 소리_00:06	
039_경적_승용차_00:15	038_길 차 소리_00:06
040_뉴스_00:12	
042_지진거_00:12	041_승용차_시동_00:06
043_정소_공항_00:29	
044_학교종_00:06	
045_정소_빠칭코_00:10	
046_정소_아파트 놀이터_00:07	
048_경적_기차_00:06	047_초인종_아파트 현관_00:03
050_경적_치하철_00:03	049_경적_승용차_00:02
	051_군중_응원_축구_00:58
052_안내방송_기차_00:10	
054_정소_용산_00:27	053_안내방송_지하철_00:04
055_지하철_00:04	
056_승용차_브레이크_출발_00:12	
057_경적_기차_00:08	
058_경적_기차_00:07	059_기차_00:05
060_철도 건널목_00:03	
061_군중_마라톤_원호성_00:15	
062_청룡열차_00:36	

1970-

056: 1975_여자형사 마리_이은수

063-066: 1977_엄마 없는 하늘 아래_이원세

068: 1979_아니 벌써_심우섭

1972_리칭의 여선생_이형표



092-105:

1988_칠수와 만수_박광수



063_기차_경적_00:07

064_버스_경적_00:18

065_비행기_00:11

066_공장_벽돌공장_00:24

066_자동차_브레이크_00:02

068_길_차 소리_00:07

070_승용차_출발_00:04

069_경적_승용차_00:02

071_길_차 소리_발자국_00:21

072_길_차 소리_00:08

073_승용차_포니_문소리_출발_00:10

074_전화벨_00:08

075_길_고가도로_00:09

076_승용차_포니_문소리_출발_00:08

078_교통사고_00:09

077_경적_지하철_00:01

080_사이렌_구급차_00:11

079_버스_정지_문소리_00:06

082_용달_정지_문소리_출발_00:13

081_승용차_정지_문소리_00:04

083_장소_나이트 클럽_사람들_음악_00:50

085_지하철_정지_00:19

086_타자기_00:09

088_버스_정지_출발_00:10

087_택시_정지_문소리_00:04

090_지하철_정지_출발_00:47

091_타자기_00:22

092_길_선거 유세_차 소리_00:18

093_길_차 소리_00:29

094_뉴스_텔레비전 뉴스_00:11

095_뉴스_텔레비전 뉴스_00:36

1980-

069-070: 1980_바람 불어 좋은 날_이장호

075-076: 1984_육식동물_김기영

077-087: 1985_돌아아_이두용

088-091: 1987_기쁜 우리 젊은 날_배창호



072-074:

1983_악속한 여자_김기

071:

1983_과부춤_이장호





096_민방위훈련_장소_광화문_사이렌_차소리_01:34

097_사이렌_경찰차_00:07

098_사이렌_구급차_00:09

099_장소_강남 고속터미널 차소리_00:17

100_장소_나이트 클럽_음악_01:01

101_장소_백화점_01:26

102_장소_영화관_영화 상영중_01:25

103_장소_오락실_00:46



106-109:

1989_구로아리랑_박종원

134-135:
1997_홀리데이 인 서울_김익석



- 104_전화벨_00:10
- 105_지하철_00:12
- 106_거리_밤거리_00:12
- 107_공창_옷공장_미싱_00:09
- 108_균중_시위_00:40
- 109_기차_00:08
- 110_균중_놀이기구_00:18
- 111_자전거_00:03
- 112_전화벨_00:05
- 113_타자_노트북컴퓨터_00:10
- 114_불고차_문소리_출발_00:07
- 115_사이렌_구급차_00:07
- 116_승용차_급회전_00:05
- 117_오토바이_00:06
- 118_장소_단란주점_사람들_노래_00:26
- 119_장소_빠징코_00:24

132-133:
1997_꽃을 든 남자_황인뢰



- 121_조인중_현관_00:01
- 122_전화벨_핸드폰_00:03
- 122_길_차소리_00:11
- 123_사이렌_경찰차_00:24
- 124_승용차_문소리_출발_00:09
- 125_장소_라이브카페_균중_00:38
- 126_사이렌_경찰차_00:06
- 127_장소_은행_00:26
- 128_차소리_사이렌_경찰차_00:17
- 129_트럭_정지_문소리_00:10
- 131_차소리_00:19
- 132_안내방송_비행기_00:23
- 133_장소_나이트 클럽_사람들_음악_00:39

114-121:
1993_투캅스_강우석



1990-

- 110-113: 1990_장미여관_서영수
- 122-125: 1994_절대사랑_유상욱
- 126-129: 1995_돈을 갖고 튀어라_김상진
- 130-131: 1996_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_홍상수
- 136-138: 1998_8월의 크리스마스_허진호
- 139-142: 1999_주유소습격사건_김상진





166-168:
2006_괴물_홍준호

146-149: 2000_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_박흥식
150: 2002_가문의 영광_정홍순
151-155: 2002_오아시스_이창동
156-157: 2003_싱글즈_권철인
158-159: 2004_달마야 서울 가자_육상효
161-163: 2005_광식이 동생 광태_김현석
164-165: 2006_미녀는 괴로워_김용화

134_전화벨_00:04	135_택시 문소리_출발_00:06	136_군중 놀이기구_00:20	137_스쿠터_00:11	138_주차 단속_00:19	139_경적_마티즈_00:21	140_교통사고_00:37	141_사이렌_경찰차_00:13	142_사이렌_경찰차_00:04	143_뉴스_00:15	144_장소_공연장_규지컬_00:41	145_장소_축구장_군중_응원_00:48	146_교통사고_00:08	147_장소_은행_00:18	148_전화벨_핸드폰_00:07	149_차 소리_00:14	150_경적_기차_00:05	151_안내빙송_버스 차 소리_00:28	152_오토바이_00:27	153_전철_00:21	154_지하철_동대문역_안내빙송_00:32	155_초인종_아파트_현관_00:05	156_길 차 소리_00:07
---------------	---------------------	-------------------	---------------	-----------------	------------------	----------------	-------------------	-------------------	--------------	----------------------	------------------------	----------------	-----------------	-------------------	----------------	-----------------	------------------------	----------------	--------------	-------------------------	----------------------	------------------

143-145:
1999_쉬리_강제규

2000-





157_타자_컴퓨터_가장_00:09	158_사이렌_구급차_00:03
159_안내방송_지하철_경적_00:13	160_길_차 소리_00:23
161_군중_안내방송_미러톤_00:19	162_장소_아이스 링크_00:10
163_화재경보_00:32	164_군중_콘서트_00:51
165_길_발자국_00:17	166_뉴스_01:10
167_뉴스_00:36	168_사이렌_경찰차_00:09
169_안내방송_경마장_00:37	170_벨소리_핸드폰_00:06
171_음성안내_내비게이션_00:04	172_길_차 소리_00:28
173_벨소리_00:08	174_안내방송_지하철_00:03
175_지하철_00:15	176_차 소리_콜절버스_00:20

160:
2005_극장전_홍상수



169-176:
2008_멋진 하루_이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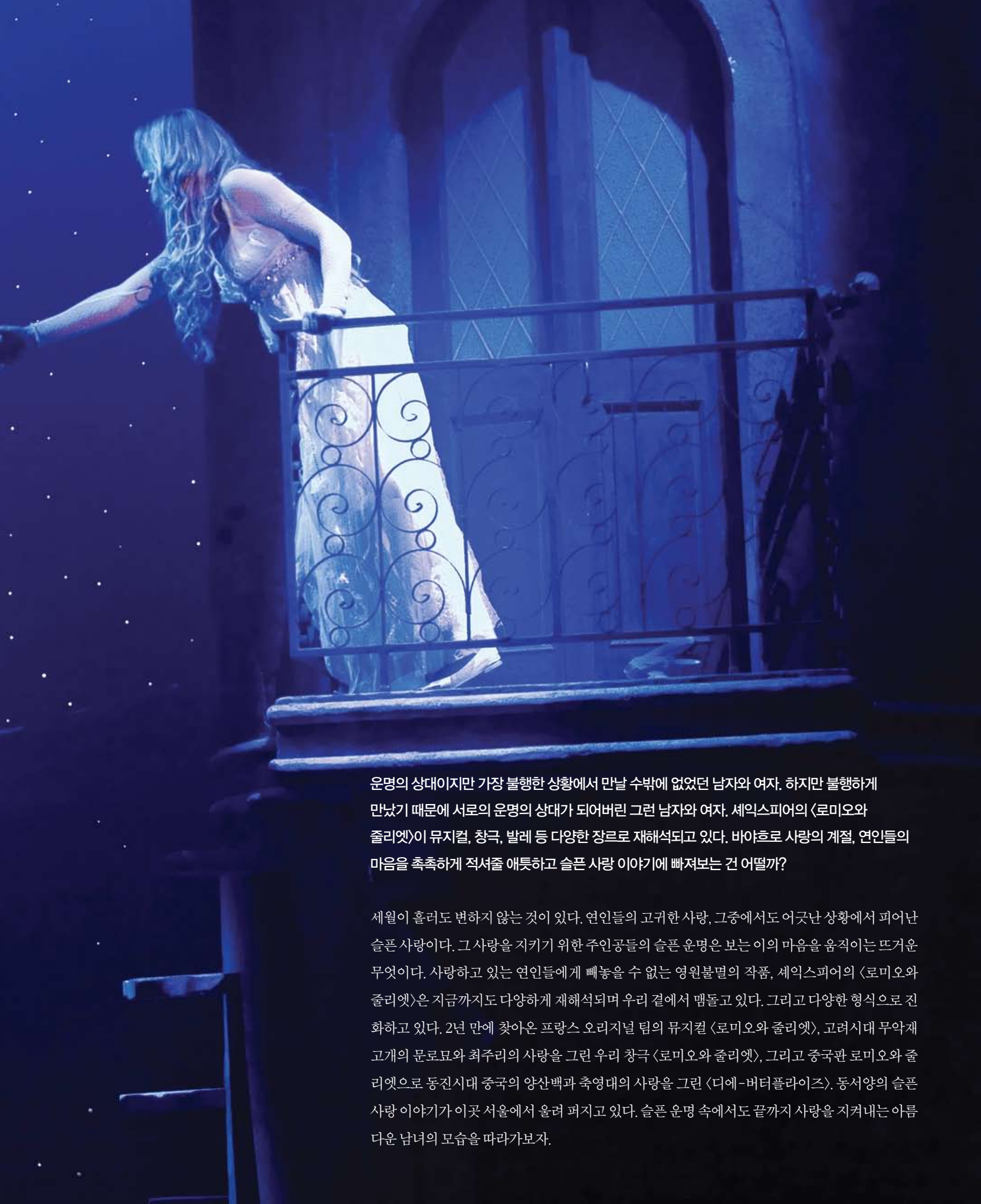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3 vol 25

HOT SKETCH
동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엇갈린 운명 속에서 피어나는 슬픈 사랑의 노래”

동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프랑스, 한국, 중국...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리메이크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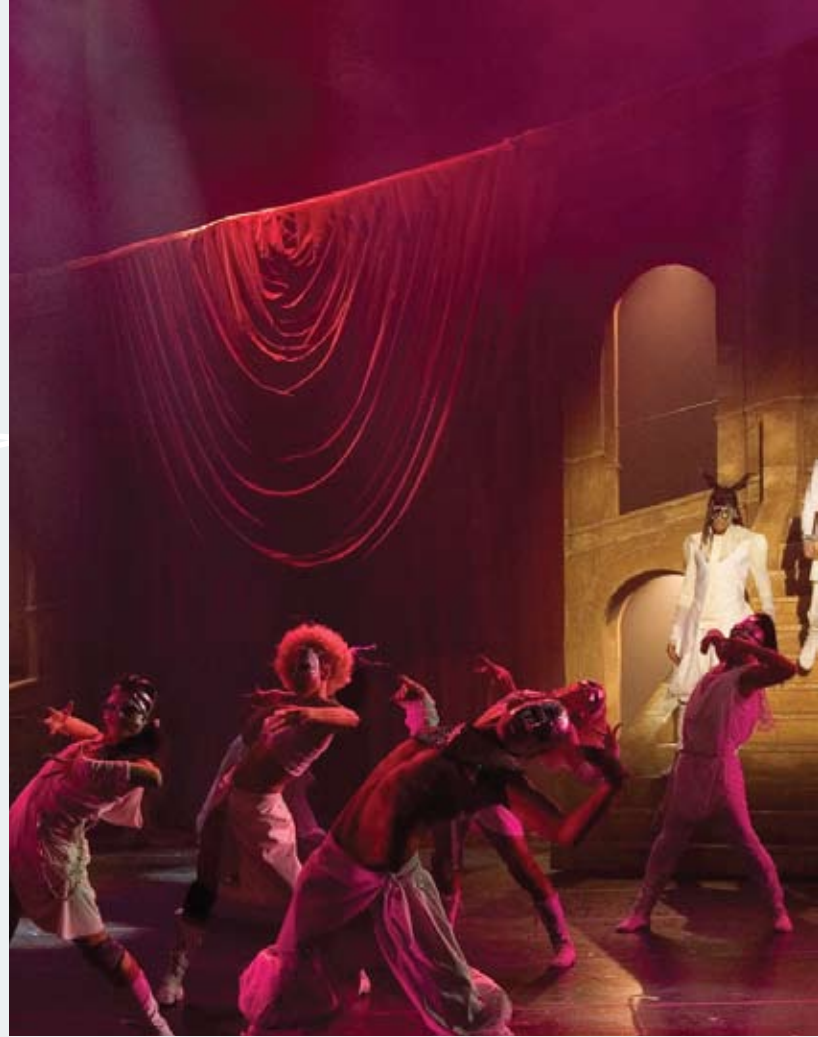
운명의 상대이지만 가장 불행한 상황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남자와 여자. 하지만 불행하게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운명의 상대가 되어버린 그런 남자와 여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뮤지컬, 창극,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되고 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연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애뜻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연인들의 고귀한 사랑, 그중에서도 어긋난 상황에서 피어난 슬픈 사랑이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들의 슬픈 운명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무엇이다.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영원불멸의 작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재해석되며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프랑스 오리지널 팀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고려시대 무악재 고개의 문로묘와 최주리의 사랑을 그린 우리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동진시대 중국의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을 그린 <디에-버터플라이즈>. 동서양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이곳 서울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슬픈 운명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남녀의 모습을 따라가보자.

HOT SKETCH

동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2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한국 관객과 프랑스
뮤지컬 팀의 조우는 새롭게 더해진 아름다운
선율의 서정적인 노래와 성숙해진 배우들의 무대
매너가 더해져 완벽함이 돋보였다.



Romeo

노래가 살아있는 프랑스 뮤지컬의 백미

셰익스피어 고전을 현대 프랑스 감각으로 되살린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이 돌아왔다. 꼭 2년만이다. 세계 16개국에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이 공연은, 2년 전 출연진이 그대로 연기하며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프랑스적인 해석과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다. 서로를 증오하는 두 가문의 아들과 딸이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 비극으로 치닫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 엇갈린 운명을 거스른 지독한 사랑과 이를 둘러싼 덧없는 질투와 분노.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라는 한계는 프랑스 특유의 서정성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덕분에 대사보다는 음악으로 모든 감정을 소화하고 표현하는, '프랑스 뮤지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연출. 현대 무용부터 힙합, 브레이크댄스, 애크러배틱에 이르기까지 극적이고 역동적인 춤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새롭게 해석한 비트 있으면서도 애잔한 음악과 화려한 군무는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객을 압도한다. 캐롤렛과 몬테규, 두 집안의 증오와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강렬한 붉은색과 파란색 의상은 극의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다.

'죽음의 여신'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는 극중 갈등을 한 단계 진화시켰고,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4곡의 추가 음악은 이번 공연 최대의 관람 포인트다. 여느 프랑스 뮤지컬과 달리 장면 곳곳에 대사가 나오는 것이 이색적이지만, 긴장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역시 36곡의 노래다. 유럽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작곡가 겸 제작자인 제라드가 현대적인 관객에 맞게 곡을 재해석했고, '스무 살이 된다는 것', '시인의 노래', '사람들이 수군대지', '권력' 4곡을 추가했다. 사랑의 세레나데로 대신해도 좋을 만한 '사랑한다는 건'과 '세상의 왕들'은 객석 반응이 가장 좋은 노래. 죽음을 예감하는 로미오의 '두려워', 캐롤렛 부인보다 줄리엣을 더 사랑하는 유모의 '그녀가 사랑에 빠졌네', 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 신부의 '이젠 모르겠어요.' 증오의 적자 티볼트의 '내 탓이 아니야' 등 독창적인 해석이 더해진 등장인물들의 노래는 오랫동안 귓가를 맴돌며 마음을 적신다. 실제 연인으로 알려진 로미오 역의 다미앙 사르그와 줄리엣 역의 조이 에스텔의 연기에 주목하면서 보면 새로운 재미거리를 느낄 수도 있다.

마지막 커튼콜은 이번 공연의 백미 중 하나다. 무대 바로 밑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한다. 선착순 100명만이 행운을 누릴 수 있는 펜사인회 역시 놓칠 수 없는 재미. 오랜만에 찾아온 이 '귀한' 공연은 2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HOT SKETCH

동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문로묘와 최주리의 구성진 창극 한마당

문태규와 캐롤렛만큼 운명적인 맞수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전라도 가문이다. 이들 가문의 자녀들인 문로묘와 최주리의 슬픈 사랑 이야기도 있다. 이번에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창극 <청>과 <산불>의 연출·창극본을 맡았던 박성환의 작품이다. 서양 작품을 온전히 한국적으로 개작한 것 자체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이 공연은 남녀 간의 애잔한 사랑 위에 구성진 전통 가락이 더해진 흥겨운 매력이 있다.

베로나 광장은 남원과 함양을 이어주는 팔랑치 고개다. 최불림은 남원 토호요 귀족으로 재 넘어 함양의 귀족 문태규와는 누대로 내려온 집안 간 원수. 문태규의 아들 로묘와 최불림의 딸 주리는 아버지가 연 재수 고향에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껴, 집안 몰래 무당집에서 정화수로 혼례까지 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있으니, 로묘가 주리의 사촌 오빠를 살해해서 유배를 떠나게 되고, 주리는 개성 명문가와 혼인이 잡혀 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주리는 무당 구룡택이 준 묘약을 먹고 잠이 들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로묘는 주리가 죽은 줄만 알고 약을 먹고 자살한다. 잠에서 깨어난 주리는 로묘의 시신을 보고 울다 칼로 자결하니, 두 집안의 원한과 증오로 아까운 두 청춘이 희생된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고스란히 옮겨왔지만 우리 전통놀이와 구성진 가락, 걸쭉한 대사로 풍성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풍물패와 연희꾼들의 버나 돌리기, 줄타기, 꼭두각시놀음, 사자 탈춤 등 신명나는 전통놀이는 흥을 돋우는 일등공신. 기와 밟기, 강강술래, 닭고놀이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전통놀이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옛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신세대 연인에게는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되었다.

또 하나의 압권은 대사 전달이다. 가끔씩 원색적인 욕도 있지만, 살아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좋은 도구다. 원작의 감동과 문체를 잃지 않으면서도 배우들의 입에 착착 달라붙는 구성진 가락과 소리를 입혀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으로 풀어낸 안숙선 명창의 숨씨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었다는 평이다.

나이 지긋한 관객이 객석을 차지하는 기존의 창극 공연장 풍경과 달리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이 특징.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의 입장료가 20만 원에 가까운 고가인데 비해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2만~3만 원으로 저렴한 것도 젊은 관객의 발걸음을 남산으로 옮기게 한 비결이다.

아쉽게도 공연은 끝났다. 하지만 뜨거운 감동을 기억하는 관객이 있는 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믿고 싶다.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걸쭉한 입담과 전통가락이
어우러진 구성진 무대는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창극에
대한 관심을, 어른세대에게는 사랑을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HOT SKETCH

동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국 최초의 대형 창작 뮤지컬'이라는 타이틀 만으로도 가치있는 작품. 작년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공연으로 벌써부터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대작이다.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 슬픈 러브 스토리

프랑스, 한국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버전이다. 작년 7월, 제2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폐막작으로 공식 초청되어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던 작품 <디에-버터플라이즈>가 국내에 처음으로 상륙한다. <디에-버터플라이즈>는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고전 '양산백과 축영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중국 최초의 대형 창작뮤지컬이다.

'양산백과 축영대'는 민간에 널리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의 4대 전설 중 하나로 나비 탄생 설화로 알려져 있다. 축영대는 부잣집의 외동딸로, 남장을 하고 서당에 공부를 하러 갔다 양산백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축영대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대관의 아들과 결혼을 할 운명에 처한다. 양산백은 스승에게 축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녀를 찾지만, 여기에도 슬픈 운명의 장난이 존재 했으니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다. 다음부터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양산백은 상심하여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시집가는 날 축영대는 양산백의 무덤 앞에서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무덤이 갈라지고 축영대는 무덤 안으로 뛰어든다. 순식간에 닫힌 무덤에서는 나비 한 쌍이 날아올라 자유롭게 춤춘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비유하곤 한다.

이 러브 스토리를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되묻고 싶다는 리돈 프로듀서는 서양에서 제작 아이디어를 얻고, 중국 전통의 문화 정수를 실험적으로 결합했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안무가 마르티노 필리를 초청하여 극 전체의 안무를 손봐서 한층 격정적인 표현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과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LED 화면에 표현한다. 이는 세계 뮤지컬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배우와 사이버 영상이 완벽히 어우러져 실감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3월 중순 공연으로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으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취재 및 글 | 임연영 기자

여성지와 육아지 등 잡지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는 소년한국일보 취재기자. 공연, 전시, 영화 등 좋아하는 분야는 뒤죽박죽. 하지만 어떤 분야든 사람 만나 인터뷰하는 걸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로미오 같은 남자를 만나기를 꿈꾸고 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3 vol 25

HOT SKETCH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조곤조곤 들려주는 문학의 목소리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이상하게 책만 펼치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소설을 읽다가 잠이 든다. 나쁜 오후엔 사무실에 앉아 소설책이라도 읽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그럴 수도 없고, 마땅한 수다 상대도 없다. 이럴 때 누군가가 문학 속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조곤조곤 시를 읽어주고 소설가의 집필 후일담을 들려준다면 이보다 달콤하고 편안하고 짜릿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채널을 맞춰보자. 인터넷에 접속해 화면이 뜨면 검색창을 힘차게 두드려라.

문장의 소리. radio.munjang.or.kr

접속 폭주에도 불구하고 창을 여는데 성공했다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번 주 방송을 들어보자. 어떤 자세든 상관 없다. 소파에 몸을 파묻든 비스듬히 누워서 듣든 신간 소설을 베고 누든 소설가 김애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이제 문학 속 작은 스튜디오의 포로가 되는 꿈을 꾼다.

2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잠겨 있던 스튜디오의 문이 열렸다. 겨울답지 않게 훈훈한 바람을 몰고 온 네 명의 제작진들이 우르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간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처음 문장 사이트를 개발하고 문장의 소리를 기획한 양연식 씨, 시집 <죽음에 이르는 계절>의 시인 조연호 씨,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문단의 국민 여동생 김애란 씨, 작곡가 이원경 씨. 이들은 앞으로 세 시간 동안 기획 양연식, 피디 조연호, 디제이 김애란, 엔지니어 이원경으로 변신해 라디오 방송을 제작할 것이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탈인가. 굳어 있던 입은 따뜻한 인스턴트커피 한 잔과 수다로 풀고, 디제이는 피디에게 오늘의 원고를 받아든다.

“요즘에는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의 차별점이라면 작가, 피디, 디제이 모두 문인들이 만든다는 거랄까요. 애란 씨는 진

행을 맡고 저는 프로듀서 겸 작가로 오프닝 원고를 쓰고 음악 선곡도 하지요. 시인들을 섭외해 대담 원고도 쓰요. 소설가들을 섭외하고 대담 원고 만드는 일은 오늘날 나오지 않았지만 이명진 씨가 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에 고정 패널로 나오는 박사 씨, 이우성 씨도 모두 소설가, 시인입니다.” 프로듀서 조연호 씨의 말이다. 초대되는 작가들과의 정담, 이웃집에 놀러 온 것 같은 편안함, 애청자들의 사연으로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지고, 16.5m² 남짓한 스튜디오에는 사랑방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들은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만나 2회 분량을 녹음한다. 김애란 씨는 어느새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가 찬찬히 원고를 읽어보고 있다. 문단의 기린아로 기대와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인데 마이크 앞에 앉아 녹음을 준비하고 있는 김애란 씨를 보니 의젓한 아나운서 느낌이 난다. “애란 씨가 진행을 맡은 게 거의 일 년이 되어가요. 이제는 제법 아나운서 분위기가 난다니깐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는 오프닝이며 친근하게 읽어주는 사연이며 호흡도 고를 줄 알고, 원고 느낌도 잘 살리고요.” 바깥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는 조연호 피디다. 시인 조연호 씨는 4대 엠시였던 이기호 소설가 때부터 문장의 소리 피디를 맡고 있다.

“되도록이면 한 번 출연한 문인들보다는 아직 방송에 소개되지 않은 문인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 자

HOT SKETCH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연스럽게 신인들의 작품을 찾게 되고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가들을 이 자리를 통해 만나게 되죠. 그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뒷풀이 자리도 기다려지고… 이 일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니까요.”

오프닝을 녹음하고 나니 오늘의 초대 손님이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시집 <국경꽃집>의 작가 김중일 씨. 문장의 소리를 취재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잡고보니 공교롭게도 오늘의 초대 작가인 김중일 시인은 서울문화재단 직원으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이래저래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 지붕 세 가족이 모인 셈이다. 미리 받은 질문지에 어떻게 답을 할지 뽁뽁하게 준비해온 것을 보니 어지간히 성실한 작가인가보다. 김중일 씨의 떨리는 듯한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자 차츰 스튜디오에 적응이 되어간다.

2005년 5월,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가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인들이 문학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 문학 방송국을 차린 것이다. 비록 어설폴지라도 제작은 철저하게 비전문가인 문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것이 더욱 빛이 났다.

첫 번째 진행자였던 김선우 시인의 낭랑하고도 잔잔한 목소리는 그간 시인의 시에 매료되었던 애독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두 번째 진행자였던 소설가 한강 씨는 스튜디오에서 기타를 치며 자작곡을 부

르기도 했다. 작가의 사적인 이야기들과 집필 후기, 초대 손님과 의 오붓한 시간들은 문학을 꿈꾸고 문학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이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이문재 시인과 이기호 소설가의 진행을 거쳐 지금은 제5대 진행자인 김애란 씨가 디제이를 맡고 있다.

부스 안에 앉아서 진행 중인 김애란 씨에게는 들릴 리가 없지만 김애란 씨가 진행하고 나서 방송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청취자 참여도 활발해졌다고 한다. 어디서나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공을 미뤄야 쑥스럽지 않은 법, 문학 라디오의 기획자라 할 수 있는 양연식 씨는 지금까지 문학 라디오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숨은 공신이다.

“작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젊은 이들, 작가 지망생들이 주로 고정 청취자들이예요. 방송 듣고 후기나 사연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 작가를 초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저희 사이트 들어와보셨어요? 사이버 문학 광장 문장 사이트요. 문장의 소리는 문장 사이트의 문학 라디오라는 한 코너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문장 사이트는 그야말로 더 많은 문학 청년들의 광장입니다.”





1



2



3



4

- 1 문학 라디오를 기획한 양연식씨
- 2 행복한 문학여행의 5대
여행지기 김애란 소설가
- 3 원고쓰고 선택하고 큐를 날리는
프로듀서 조연호 시인
- 4 늘 한자리에서 녹음을 담당해준
이원경 작곡가

radio.munjang.or.kr



자, 이쯤해서 사이버 문학 광장 문장을 둘러보자.

가장 왼쪽에 있는 방은 웹진이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작가들의 신작 시와 소설을 볼 수 있고, 작가가 읽어 주는 자작시, 에세이와 대담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들이 요목조목 정돈되어 있다. 두 번째 방은 글틴. 양연식 씨가 추천하는 즐길 거리, 볼거리 많은 방이다. 단, 문학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지만 기웃거리보고 싶은 청소년에게 그렇다. 국내 유일의 온라인 청소년 전용 문학관. 연중 온라인 청소년 글짓기 대회가 열리고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 글쓰기 게시판을 전담해 평가와 지도를 맡아준다. 뽕뽕글만 쓰면 무슨 재미겠는가. 이곳에선 생각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읽을거리도 많다. 어떤 책을 읽을까. 글 써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청소년들의 내밀한 고민들을 이 시기를 지나온 선배들이 조언해준다. 사이버 문학 광장의 맨 끝방은 문학 집배원이다. 2009년의 문학 집배원은 시 배달 담당 나희덕 시인과 문장 배달 담당 김연수 소설가다. 신청을 하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클릭 하나로 시와 문장을 배달 받는다. 시인이 읽어주는 시, 배우들이 낭송해주는 문장으로 한 주를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취재 내내 별말이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등까지 돌리고 있어 눈인사 건네기도 쉽지 않다. 엔지니어 이원경 씨. 이분이 없으면 스튜디오의 문을 열 수도 없고 녹음, 편집도 불가능하다. 얼핏 카메라를 들이대니, 누구 닮지 않았느냐고 양연식 씨가 묻는다. 글썄요... 영화배우 양조위 닮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과묵한 엔지니어는 쑥스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휴게실로 나간다. 작곡가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경 씨는 초창기부터 같이해왔으니 가장 긴 시간 문장의 소리를 만들어온 셈이다. 가끔 사이버 공간을 벗어나 진행되는 문학 나눔 콘서트의 기술도 맡고 있다.

취재 중에 알게 된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인기 디제이 김애란 씨가 3월 방송을 끝으로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작품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돌아갈 때다. 후임은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지만 청취자들에게 몇 사람 추천을 받고 투표하는 이벤트를 해볼까 구상 중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아니 인기 작가 김애란 씨를 더 붙잡을 일이지 미련 없이 후임 이야기를 하다니, 이 팀 너무 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건 청취자들은 김애란씨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낸 셈이다.

시곱바늘은 다시 한 바퀴를 더 지나가고 이들은 다음 초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우며 녹음이 끝나면 오늘은 어디서 뒷풀이를 할까, 의견을 모은다. 아까 대담 중에 김종일 시인이 말하길,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건 그들과의 술자리라고 했던가. 작은 테이블에 무릎을 맞대고 둘러앉아 소주잔을 부딪치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들리는 것 같지 않은가.

문장의 소리란 그런 것이다. 삶이 아프다고 엄살 부리지 않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상처가 있어야 진정한 문학이라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들이 치켜든 술잔엔 문학이라는 신성하고도 방탕한 이름이 담겨 있다. 좁은 스튜디오에서 느껴지던 묘한 긴장과 편안함의 줄타기. 그곳에 문학의 힘이 있었다.

취재 및 글 | 김민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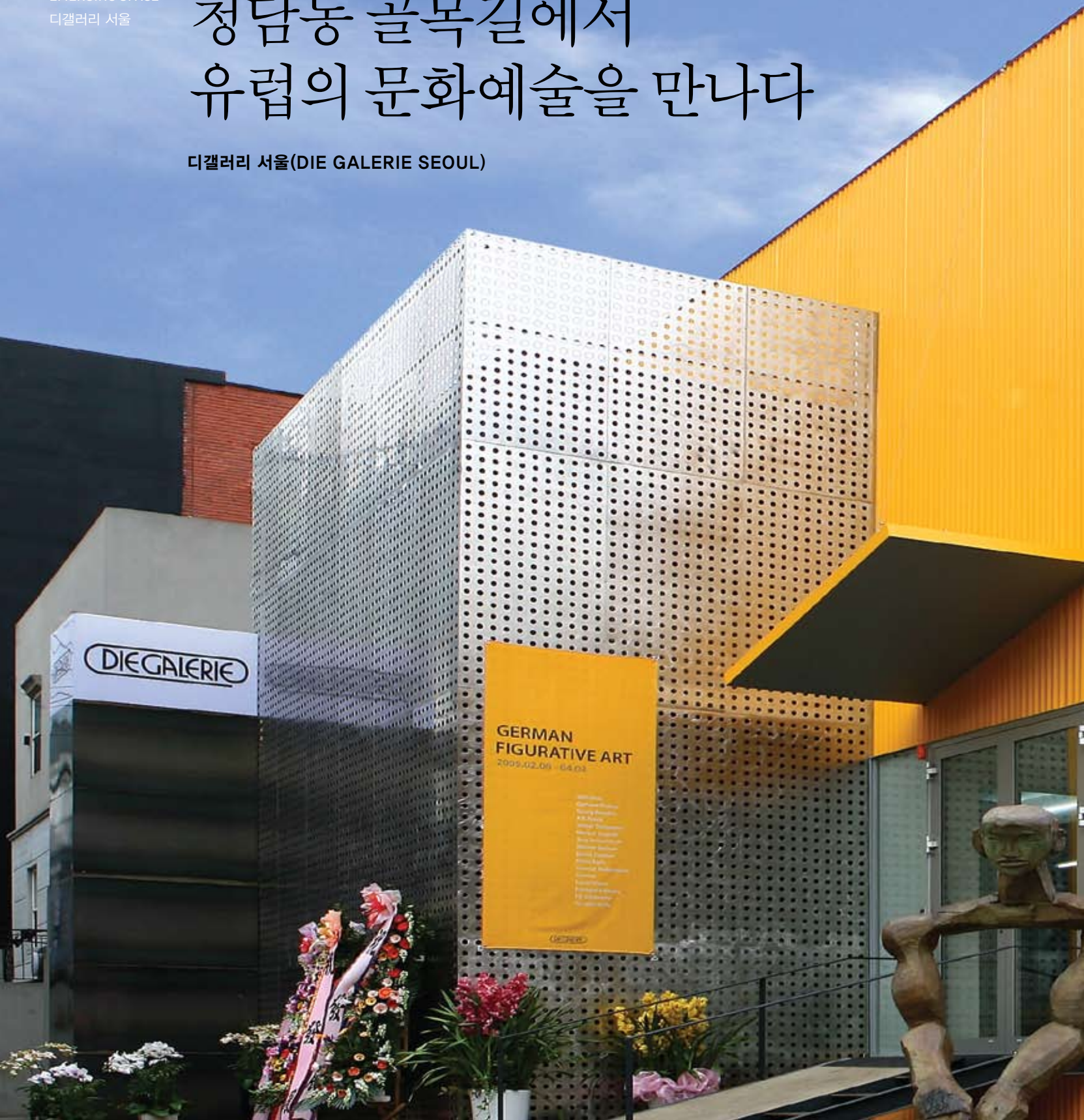
희곡, 뮤지컬, 방송 원고를 쓰며 살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 '문화+서울' 인터뷰 기사도 종종 쓴다.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사진 | 한금선

EMERGING SPACE
디갤러리 서울

청담동 골목길에서 유럽의 문화예술을 만나다

디갤러리 서울(DIE GALERIE SEOUL)



DIE GALERIE

세계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독일계 화랑 디갤러리(DIE GALERIE)가 지난 2월 6일 청담동에 디갤러리 서울(DIE GALERIE SEOUL)을 열었다. 유럽의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작가들의 세계 진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개관 목표처럼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예술 소통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기존의 다국적 갤러리가 상류층과만 거래하는
상업적인 갤러리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 공간으로 디갤러리를 만들 계획”

화려한 서울의 청담동 거리,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디자이너의 명품관, 고급 취향의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유행 따라 들고나는 곳. 이 거리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취급하는 상업 갤러리들의 출현을 환영했다. 해마다 세계 미술 시장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작품이나 미국 팝아트의 대표주자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판화가 쇼윈도를 채웠고, 이로써 값비싼 작품들을 청담동 거리에서 만나는 일들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미술 작품이 명품 디자인 못지않은 명품으로서, 동시에 미래형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또한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갤러리들은 청담동 아트 밸리를 형성했고, 심지어는 한 빌딩에 14개의 갤러리들이 몰려 있는 갤러리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서울 청담동을 누비던 화려한 명품 애호가들은 명품 화랑의 명작들을 상품들과 함께 볼 수 있음에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럭셔리 문화를 대표하는 잡지들도 특별기획이나 문화-라이프스타일이란 꼭지로 갤러리-작가-작품에 대한 소개에 열을 올리고 미술품 구입에 대한 투자 노하우를 기사화했다. 이렇게 상업 갤러리 공간들의 청담동 진출기와 확장은 불패 신화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몰아닥친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와 환율 불안정으로 몇몇 '청담점'들은 문을 닫고 활동을 접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색다른 랜드마크를 꿈꾸며

이런 상황에 2009년 2월 6일, 서울 청담동에 디갤러리 서울점(DIE GALERIE SEOUL)이 개관했다. 디갤러리는 30년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갤러리다. 디갤러리의 피터 펄퍼트(Peter Femfert) 대표¹는 지난 2007년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역동적인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성지는 대표와 의기투합하여 서울점 개관을 결정하였다. 이렇듯 국제적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다국적 갤러리가 서울 청담동에 입성한 예는 디갤러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말 독일-베이징-서울에 지점을 둔 마이클 쉘츠 갤러리(Michael Schultz Gallery Seoul)와 2007년에는 세계 8개 도시에 지점을 둔 오페라 갤러리(Opera Gallery)가 갤러리 명품관 시대를 촉발시키며 서울에 입성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개조한 1·2층 245㎡(74평) 규모의 디갤러리가 뒤를 이었다.

독일 디갤러리 피터 펄퍼트 대표는 불황인 지금 이때에 디갤러리를 개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미술 시장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상황이지만 뛰어난 미술은 주식처럼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쁠 때 투자해야 상황이 좋을 때 열매를 딸 수 있으며 경제가 나쁠 때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다.”² 서울점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성지는 대표³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려울 때 문을 열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기존 다국적 갤러리들이 상류층과만 거래하는 상업적인 갤러리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 공간으로 디갤러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리하여 갤러리 공간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분위기를 압도하는 명품 갤러리들과는 조금 다른,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해 도보자에게 우호적인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앞으로 와인,⁴ 미술, 음악 3가지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차차 고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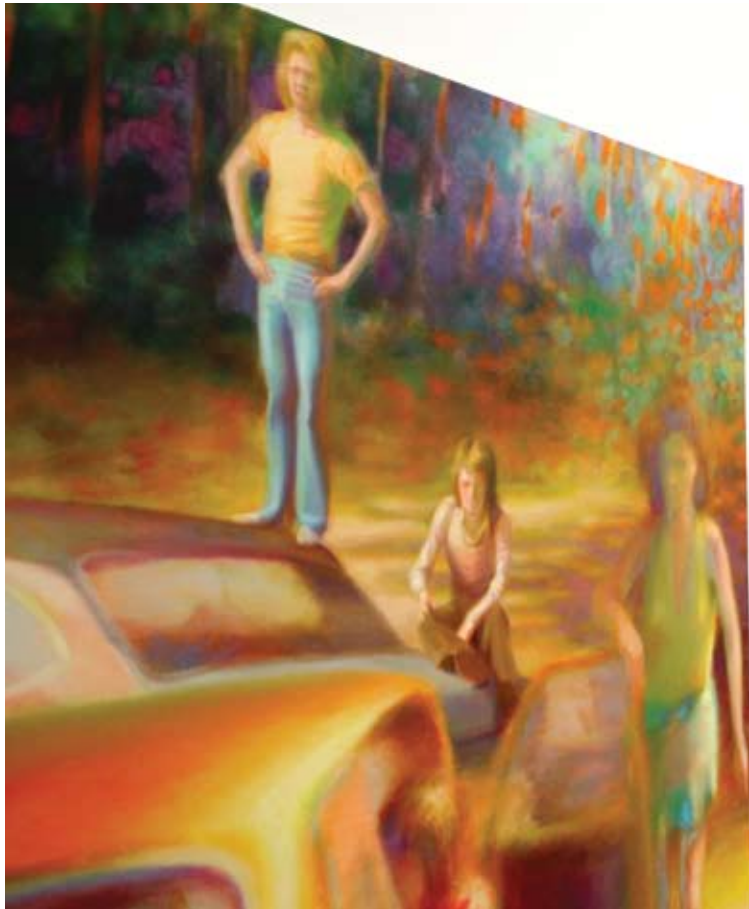
1 필자가 갤러리를 방문한 2월 10일에는 이미 피터 펄퍼트 대표가 서울을 떠났기에 인터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기사 중에서 발췌하였다.

2 2009.02.05 [NEWSIS] 독일 디갤러리 서울점 개관·세계 5번째, 유상우 기자 / 01/19 [연합뉴스] 불황에도 신설 갤러리 줄 잇는다. / 02.05 [연합뉴스] '미술은 한국과 독일 잇는 다리' 경수 현기자

3 디갤러리 서울점은 본점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획력과 콘텐츠를 제공받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점의 운영은 성지는 대표가 한다. 인터뷰 기사는 2009. 02. 11[여성신문] 참조, 국내 최초 독일화랑 '디갤러리' 성지는 대표, 김은경 기자

4 펄퍼트 대표는 갤러리 사업과 함께 미켈란젤로가 소유했던 집과 주변 포도밭을 사들여 '카사 노바 디 니타르디 키안티 클라시코'라는 라벨의 한정판 와인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5 디갤러리 보도자료 중에서



“디갤러리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디갤러리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작가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작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두 대표의 인터뷰 기사 속에서, 지금은 열매를 따기 위한 투자와 준비의 시기로 한국 미술 시장에서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입지를 굳혀나가겠다는 그들의 전략이 엿보인다.

유럽 현지미술과의 생생한 조우를 위해

원래 독일 디갤러리는,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이자 1950~1960년대 초현실주의를 이끌었던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 1896-1987)의 대표 딜러로서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고 있듯이, 주로 초현실주의, CoBrA그룹,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의 조형 미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다루는 일에 주력해왔다고 한다. 또한 스페인의 레이나 소피아(Reina Sofia)나 독일 Museum Würth in Künzelsau 등의 유명 갤러리와 박물관의 전시를 기획하거나 큐레이팅

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점의 목표도 디갤러리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좋은 작품들과 만나게 하고, 유럽 미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다.⁵

이러한 대표들의 의지와 함께 디갤러리가 선택한 개관 전시는 ‘독일구상미술’을 소개하는 〈독일 조형미술전(展)〉전시다. 세계적인 명성의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소형 작품에서부터, A.R. 펄크(A.R. Penck), 마커스 루퍼츠(Markus Lupertz), 그리고 현재 베를린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라는 볼케 스텔츠만(Volker Stelzmann)-디갤러리가 추천하는 대표적 현대 미술 작가 중의 한 명-과 에크하르트 크리머(Eckhard Kremers)에 이르기까지 16명 작가들의 회화 및 조각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필자가 전시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



은 느낌은, 국내에서 인기 있는 유럽 몇몇 작가들의 작품에서 벗어나 현재 독일 현대 미술계에서 진행되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신선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개관 전시는 갤러리에 대한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필자의 시각에서 개관전을 통한 갤러리의 의도를 엿본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하다.

우선 추상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비구상 회화작품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구상적 형상들이 어느 정도 상상 가능한 감각을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둘째, 통일 이전의 동·서독 작가들의 작품을 고루 배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독일인들만의 정치적·사회적 심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독 출신이자 신표현주의적 성향의 스텔츠만은 억압받는 상황 속에

서의 인간의 공포와 불안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무겁고 어두운 신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이나 진지하고 개념적인 작품들을 독일 미술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고 방문한 관객들은 생각보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다양한 스타일에 화려한 색채로 표현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적·성적인 표현들의 작품은 전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듯 디갤러리의 개관전은 4월 3일까지 계속되며, 이후로는 Hundert Wasser의 개인전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유럽 문화예술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갤러리 목표와 함께, 디갤러리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디갤러리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작가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 본점에서는 1월 28일부터 두 달간 김창열, 장익중, 이대원, 오치균 등의 한국작가의 작품을 현지에 소개하는 〈한국조형미술전(Figurative Art from Korea)〉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이해와 소통의 문제는 사실상 미묘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조정과 화합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디갤러리는 상업 갤러리로 이르기 위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수익 창출이다.

독일-한국이라는 공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필자가 디갤러리에 기대하는 바는,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전략하에 양국 관람객을 만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청담동이 진정한 문화예술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 갤러리의 노력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향유자로서의 태도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글 | 오세원

현재 전시기획사, SW청록파 대표 및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예술행정 전공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과정 이수. 이코노 예코 전시, 책방전시리즈 등 전시 기획 및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 design_network_asia 2006 프로젝트 매니징, 미술비평 등의 활동을 했다. 서울문화재단 젊은작가지원프로그램 및 스페인 ARCO아트페어 평가위원을 역임했다.

사진 | 천현정

문화를 나누는 손
한국콜마 대표이사
윤동한 인터뷰

나눔을 공감의 문화로 만들다

한국콜마 대표이사 윤동한(尹東漢) 인터뷰

한국콜마는 내면과 외형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공급하는 한국콜마는 외면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전한다. 나눔과 공감을 통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업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 윤동한 대표이사를 통해 한국콜마의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람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외모가 뛰어나다 때 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면의 따뜻함을 말할 때다. 화장품은 주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용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다. 세계 9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콜마그룹 중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1990년 5월 설립되었다. 화장품 연구 개발, 제조 사업으로 시작한 한국콜마는 그 후 뷰티&헬스 케어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2002년 제약 사업, 2004년에는 계열사 건강기능식품 기업 선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는 R&D 전문 기업으로 연 160여 기업에 화장품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콜마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뿐만 아니라 내면의 따뜻함을 실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 외에도 직원과 고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매 순간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Q.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 전달’ 이나, 파키스탄 지진 난민 돕기, 북한 수해 주민을 위한 의약품 제공을 비롯,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바자회를 여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달라.

A. 한국콜마는 홀로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매주 금요일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다 드신 도시락을 가져와 세척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는 노인정과 요셉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와 청소, 목욕 등을 도와드리고 있는 활동을 매주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을 당했다거나 구호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후원도 하며,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Q. 이렇게 사회 복지,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

A. 봉사활동의 시초는 야쿠르트 배달이었다. 예전에 달동네에 홀로 사는 어르신 몇 분을 위해 야쿠르트를 배달시킨 적이 있다. 야쿠르트를 배달시키면 아주머니가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고 급할 때면 도움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규모로 시작했다. 이렇게 조금씩 진행하다보니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적선(積善)이라는 말이 있다. 적선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자신에게 선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삼대가 적선해야 한대가 잘 산다”라는 말처럼,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나누는 손
한국콜마 대표이사
윤동한 인터뷰

Q. 이러한 사회 후원, 나눔 실천 등을 통해 한국콜마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A. 요즘의 세상살이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사는 삶도 많이 각박해졌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세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콜마의 직원들은 작게나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육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큰 생각도 좋지만 작더라도 꾸준히 선을 쌓고 이를 통해 각 개인의 마음이 더 선해지는 것이 활동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Q. 내부 직원들과 거래 기업에 다양한 공연 티켓을 선물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부 고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A. 한국콜마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런 기회를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콜마의 관계사, 협력사와 함께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음악 공연, 미술 공연, 마당놀이, 연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삶의 감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긍정적이고 유기적이며 창조적인 마인드를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후원해 협력 기업, 관계 기업 임직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공연을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우리 동네>라는 연극 공연을 후원하여 한국콜마 화장품 쇼핑물 회원들을 초청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마당놀이 <박씨전>을 직원들과 함께 관람해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직원들 간에 그 느낌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Q. 주로 어떤 종류의 공연에 티켓을 후원하고 있으며, 그 선택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가.

A. 티켓 후원이나 공연 참여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 좋은 공연이 있으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직원들과, 그리고 협력 기업들과 함께 관람 기회를 공유하고 있다.

Q. 사내에 회화 작품이 많이 걸려 있는데, 어떤 그림들인지 소개해달라.

A. 주로 유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 등의 서양화가 사무실 곳곳에 걸려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정서적 차원에서 마음을 순화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감상하면서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물을 다르게 보는 능력도 키울 수 있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작가들의 그림이 실린 사보 표지가 인상적이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선하기도 했다. 주로 어떤 작품들을 선정하는가.

A. 사보에는 서양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김성희 화백, 김성호 화백, 김종복 화백, 김미옥 화백 등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다. 사보 독자들로부터 사보를 보면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다는 좋은 평가를 듣기도 했다.

Q. (위의)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 하고 있다.

A. 사보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해주는 것이 가장 큰 후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때에 따라서는 전시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림을 구입하여 사내에 전시하기도 한다.

Q. 지금 하는 후원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후원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가.

A.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 문화예술은 직원들과 협력 기업, 그리고 관계 기업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데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좋은 공연, 그림 등이 있는 곳에 한국콜마가 늘 함께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취재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3 vol 25

FOCUS INTERVIEW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창단 40주년 맞은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FOCUS INTERVIEW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좀체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50년 넘게 연극을 한다는 것, 40년 동안 극단을 운영한다는 것, 20년 넘게 한 작품을 연구하듯 공연해온다는 것, 극단 이름이 붙은 소극장을 갖는다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것은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는 대한민국 문화계에서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이기 이전에 존경받는 연출가이며 선배다. 연극을 하는 후배들이라면 청년 시절 그의 연극을 보고 머리가 멍해졌을 것이며 한 번쯤 그와 한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 어느덧 창단 40주년을 맞은 극단 산울림.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 임영웅을 만나러 산울림 소극장을 찾아갔다.

산울림 소극장에선 신연극 100주년 기념 연출가 대행진 마지막 시리즈인 이성열 연출의 <뉴욕 안티고네>가 공연 중이었고, 연출가 임영웅은 3월 중순에 무대에 올릴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라는 작품을 한창 연습 중이었다.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극단 창단 40주년 기념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박정자 씨가 엄마 역할을, 이번에는 젊은 배우 서은경 씨가 딸 역할을 맡아서 연습 중이죠. 극단 창단 40주년 기념 시리즈로는 <반고호와 그의 동생 테오>, <고도를 기다리며>, <밤으로의 긴 여로>를 공연할 예정이고 여력이 되면 창작극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올 초 호연을 한 박근형 연출의 <너무 놀라지 마라>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지만, 이 공연을 제외하면 올해 산울림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작품은 임영웅 연출로 올라간다. 일흔이 넘는 노장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도 연출가 대행진 시리즈를 하면서는 후배 연출들 덕에 조금 쉼인데. 그전 해까지는 늘 그렇게 연출했어요. 달리 건강관리를 하는 건 없지만 특별히 아픈 데는 없

고, 허리 디스크가 있긴 한데 이것은 내가 안고 가야 할 병인 거고.”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 시절의 임영웅은 어쩌면 음악가가 되었을 운명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임태식 씨는 국내 재즈의 초기 개척자였고, 숙부인 임현식 씨는 KBS 교향악단을 창단한 분이였다. 할머니는 늘 손주들에게 “너희는 예술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귀동냥으로 들은 차이코프스키나 베토벤, 조부모님과 드나들던 극장에서 길러진 예술적 끼는 감출 수 없었다. 연극과의 첫 인연은 휘문중학교 시절 연극반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의 태자> 공연에서 신라가 망할 때 웅성거리는 신하 중 한 명으로 처음으로 무대에 선 것이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 시절 판자 학교였지만 유일하게 이화여고와 휘문고만 제 이름을 갖고 학교를 열었다. 학예부장이던 그가 교장 선생을 찾아가 학교 명예도 빛낼 겸 예술제를 열자고 건의하고, 유명 인사가 된 학교 선배들을 찾아가 모금을 하고 공연까지 올린 이야기는 그의 배짱이 어땠는지, 그 시절 그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웃음이 나는 일화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신문사 청소년 좌담회에서 동랑 유치진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유치진 선생은 연극을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며 적극 권유했고, 임영웅은 서라벌예술대학에 진학해 연출을 공부한다. 입학한 그해 전국 중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가 처음 열렸는데 휘문고등학교 연극반의 연출을 맡아 유치진 작 <사육신>을 연출한다. 이것이 그의 연출 데뷔작이 되는데, 그때 배우로 출연한 이들 중에는 탤런트 박근형, 성우 안종국, 박 대통령 역할로 유명해진 고(故) 이진수 씨가 있었다.

이후 그는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대한일보의 문화부 기사를 거쳐 TBC와 KBS 드라마 피디로도 일했다. 전후라서 이직이 잦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문화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시절에도 국립극장과 예그린에서 연출 활동을 계속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연극을 했나

싶어요. TV가 아닌 라디오 드라마 팀에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늘 라디오 드라마만 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 사람의 암묵적인 양해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나로서는 행운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인지 언제나 내 연극은 정말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KBS 재직 당시 여러 번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때마다 반려되기도 했고, 19년을 근무하다가 1992년 KBS를 명예 퇴직했다.

산울림 극단과 연출가 임영웅을 떠올릴 때마다 늘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작품은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다. 임영웅과 <고도를 기다리며>의 운명적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카페 페아뜨르에 올릴 공연으로 해롤드 핀터의 <덤앤더

FOCUS INTERVIEW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2007년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엄마역에 박정자

며)를 연습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원 세트에 두 사람이 나오는 <덤앤더머>가 <고도를 기다리며>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고도를 기다리며>도 언젠가 공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신축한 한국일보 사옥 12층에 극장이 생기는 데 공연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뜻 하겠다고 했지요. 연습실이 없어서 신축 건물 빈 사무실에 들어가 연습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작품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1969년이지요, 아마.”

그해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사뮈엘 베케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럴 때는 받아주었다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을 듯하다. 그 수혜로 공연 일주일 전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 티켓은 전석 매진되었다. 연극계의 침체가 우려되던 때 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연극인에게 힘을 주는 소식이었다. 공연을 본 관객들과 연극인의 반응도 뜨거웠다. 공연 자체가 문화적 충격이었으며 이 공연을 보고 연극을 해야겠다는 젊은이가 나올 정도였다. 이후 임영웅과 <고도를 기다리며>는 지금까지 연극 인생을 함께해왔다.

2008년 더블린 베케트센터 초청 극단 산울림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사진
(블라디미르-한영구, 에스트라공-박상중, 포조-전국환, 럭키-박윤석)



“어쨌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어서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단 작품도 이 작품을 했고 40년 동안 이 작품을 연출해왔지만 연출 콘셉트는 같아도 해석은 항상 달랐어요. 공연을 하면 할수록 완벽한 계산 속에 쓰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한 작품을 점점 밀도 높은 공연으로 완성시켜가는 거지요.”

극단 산울림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1989년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1990년 더블린 페스티벌 초청, 작년에는 작가의 고향에 건립된 베케트기념센터 초청으로 베케트 극장에서 공연을 올렸다. 한 작품을 키워온 연출가로서는 더할 수 없는 행운이자 하늘에 있는 베케트도 감동할 일이다.

임영웅은 한국일보 공연이 끝나고 몇 달 뒤 극단 산울림을 창단한다. 평소 연극을 같이했거나 뜻이 맞는 김성욱, 함현진, 김인태, 김무생, 김용림, 사미자, 윤소정, 손숙 등 10여 명으로 극단을 구성하면서 프로듀서 시스템이라는 작업 방식을 선언했다.

“프로듀서 시스템은 공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연출이 전적으로 지겠다는 거지요. 이전의 동인제 시스템은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연의 질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산울림 극단은 제가 연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좋은 연극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수한 창작극으로 연극 운동을 하고, 훌륭한 번역극으로 연극 연구를 한다는 것이 당시 산울림 극단의 목표였다.



극단 산울림은 1985년 서교동에 산울림 소극장을 개관한다. 당시 원각사나, 카페 페아뜨르, 창고극장 같은 소극장은 있었지만 개인이 연극을 위해 사재를 털어 세운 소극장은 처음이었다.

“월급쟁이에다 연극인이면 자기 극장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 만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한데 아내가 집을 팔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집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지만 집 판다고 될 일도 아니었지. 여러 사람이 말했는데 아내가 힘을 실어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런데 집 팔고 빚을 내도 겨우 외형만 갖출 수 있어서 개관은 좀 더 있다 하자 했어요. 다행히 주변에 지인들이 알고 무슨 소리나 개관은 해야 한다 하면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십시일반 도와줬지요. 서울신문 신우식, 한국일보 장명수, 조경희 등의 언론인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공연할 때마다 초대를 해요.”

산울림 극단은 여성 연극 레퍼토리가 안착된 곳이다. <위기의 여자>,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담배 피우는 여자>,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은 공연마다 여성 관객들의 발길을 모았고 이제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찾아오는 유일한 극장이 되었다.

“극장을 만들어놓고 나서 하도 관객이 안 드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1960, 1970년대 공연을 보러 다니던 여대생들은 지금은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극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까 하다가 여성의 섬세한 내면을 그린 <위기의 여자>를 각색해서 올렸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이라는 <살짜기웁서예>를 연출하고 리얼리즘의 계보를 잇는 연출가로 꼽히며, 섬세한 여성의 심리를 그린 연극들과 부조리극인 <고도를 기다리며>를 지치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해온 연출가 임영웅.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 다른 시도를 하며 산울림 극단의 색깔을 만들어왔다. 평생 그렇게, 연극만 하면서 연

극을 인생의 동반자로 알고 살아온 연극계의 청년은 연극 말고 다른 것에는 도무지 관심을 둔 적도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나, 스포츠 광이에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지. 어지간한 중계는 다 들어요.”

이제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후 세 시,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연습 시간이 다가와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했다. 극단 창단 40주년,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 40주년, 산울림 소극장 개관 25년. 한 사람의 인생은 기록이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가 걸어온 연극의 길은 우직한 한국 연극의 행보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이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늘 청년처럼 건강하게, 때로는 소년처럼 해맑게, 때로는 할아버지의 넉넉한 웃음처럼 후배들을 감싸 안는 지금의 모습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취재 및 글 | 김민정 기자

희곡, 뮤지컬, 방송원고를 쓰며 살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 '문화+서울' 인터뷰 기사도 종종 쓴다.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사진 | 정강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원작 드니즈 살렘, 연출 임영웅)

일정 : 3/24~5/10

장소 : 산울림소극장

문의 : 334~5915, 5925

YOUNG ARTIST 2009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강슬기

세상에서 유일한 경험을 만드는 남자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강슬기

atoyman(어 토이 맨, 장난감 만드는 사람).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강슬기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입김을 불어 전등을 켤 수 있고, 빛을 물감처럼 섞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에게 오감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줄, 이전에 없던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 강슬기를 만나본다.

“제 명함은 정말 간단해요. 포스트-잇은 비싸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가방을 뒤적이던 강슬기는 큼지막한 도장 하나와 형광 분홍빛 포스트-잇을 꺼냈다. 포스트-잇에 도장을 찍으니, ‘seulki kang’이라는 큼지막한 이름과 atoyman이라는 그의 직업이 새겨졌다. 오래 인쇄된 모양의 명함들만 주고 받았던지라, 포스트-잇에 도장을 찍은 그의 명함을 들고 어리둥절하면서도 입가에 스익 미소가 번진다. 명함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손바닥 반 크기만 한 종이 위에 설명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명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직업, 연락처, 그리고 그를 호명할 수 있는 직함이다. 그런데 내가 받은 강슬기의 명함은 보통의 명함보다 크기

는 작지만,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의 명함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례적인 정보가 아닌 ‘강슬기’라는 사람이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독특한 명함이 말해주는 ‘강슬기’는 장난감을 만드는, 어느 누구보다 재미있고, 신선하며, 도발적인 사람이다.

목요일 저녁 7시 반. 주중 직장인들이 월요일 다음으로 건디기 힘들다는 목요일 저녁 홍대에서 강슬기를 만났다. 그는 회사에서 회의가 늦어지는 통에 저녁도 못 먹어 허기진 상태였다. 간단한 샌드위치로 요기를 하면서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예술에만 그쳤던 미디어 아트를 재가공해 공간, 화면





2CH-Action Light with 김동균, 송봉규 원소희, 유성웅



Mixist



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디자인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강의도 나가서 학생들과 작업도 해요. 개인 작업은 주로 주말에 하고요.”

그의 개인 작업은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다. 그는 ‘atoyfactory’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디렉터로 장난감을 만든다. 그런데 그가 만드는 장난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비 인형이나 레고 같은 장난감이 아니다. atoyfactory는 인터랙티브 플레이와 장난감을 만드는 ‘토이맨’ 두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다. 한 사람은 강슬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가 런던에서 만난 디자이너 켄이치 오카다(Kenichi Okada)다. 2005년, 처음에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작업을 마음먹고 다시 시작한 것은 2007년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장난감을 다르게 말하면, 인터렉션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즉 관객의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말한다면 예전 코엑스몰 복도 바닥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다르게 움직이는 이미지 모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인터랙티브 디자인 중 일부예요.”

그런데 그는 인터랙티브 디자이너라는 호칭 대신 토이 디자이너를 더 선호한다.

“사실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결국 장난감이잖아요. 사람들이 만지고 체험한다는 점에서 같은데, 사람들은 장난감이라고 하면 다들 바비 인형 같은 것들을 떠올리죠. 그리고 이게 ‘작품’이라고 하면 일단 고정관념이 생겨요. 명칭 하나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죠.”

그의 말처럼, 그의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미’다. 그리고 그 재미는 ‘새로움’과 연결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때로는 고급화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

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경험, 신기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오브제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전제로 뜻이 맞는 4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리서치 북’을 만들었다. 이 리서치 북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2CH(On · Off)을 서로 다른 오브제에 대입해보는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한 투 채널 라이트(2CH-light)도 그중 하나다. 투 채널 라이트는 전등을 켜는데 온 · 오프 스위치 대신 입으로 불어서 전등을 켜기도 하고 책을 읽기 위해 펼치면 켜지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두 가지 채널의 패턴으로 이뤄져요. 쉽게는 눈을 감고 뜨는 일이나, 앉았다 일어서는 켜고 끄는 것도 같은 이치죠. 리서치 북은 ‘한 가지 오브제에 해당되는 경험을 다른 오브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모여 있는지 상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티슈는 닦거나 코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지요. 그런데 티슈 상자 안에 티슈가 몇 장 남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티슈를 한 장씩 뽑을 때마다 점점 빛이 바뀌는 상자를 만들어서 ‘티슈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는지, 사람들이 열쇠를 여러 개 묶어서 들고 다니는데 열쇠가 한 몸통에 여러 개 붙어 있다면,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죠. 참,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로고가 한 몸통에 두 개의 열쇠가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프로젝트 그룹 ‘atoyfactory’를 통해 관객을 만난 그의 작품 믹시스트(Mixist)도 새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면과 재미있게 작품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이다.

“Mixist는 무형의 물질인 빛을 유형의 물질로 전환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의례히 불을 켜고,

YOUNG ARTIST 2009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강슬기

끈다는 의미, 빛을 비춘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지요. 그런 빛에 대한 개념을 깨고 싶었어요. 이미 식상한 방법 말고 빛을 뭔가 창의적인 도구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빨초파(RGB) 색깔이 색의 기본이잖아요. 이걸 물감 섞듯이 따르는 양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방법으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했죠.”

이처럼 그의 작품에서 재미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관객이 직접 작품을 만져야 한다. 아무리 비디오나 포트폴리오로 작품을 보더라도 실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게 그의 작품이다. 만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 그의 작업이기에, 전시장에서 관객의 피드백은 매우 빠르고 직접적이다.



“관객마다 반응이 다 다른데, 아이들은 좀 더 적극적이죠. 한 아이는 첫날 오고, 다음 날 또 오고, 그다음 날 또 와요.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심하게 만져서 부서질 때도 있는데, 사실 장난감이 부서지는 건 당연해요. 가지고 놀다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게 장난감이죠. 반면 어른들의 반응은 미소 짓는 정도예요. 아무래도 전시장이라면 뒤통지고 작품을 봐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

들은 살짝 미소만 보여도 ‘아, 제 작품에 만족하는구나’라고 생각하죠.”

만지고 놀기 재미있는 그의 작업의 원리는 간단히 설명하려고 해도 ‘센서’ 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의 작업 중 일부는 공학 기술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그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설계 도면, 전자 부품, 회로 같은 것들은 그저 그리고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공학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을까.

“디자이너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이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인 전기나 전자 쪽 지식이 필요해요. ‘그 분야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표현하다보니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쪽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는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전 세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양이 넘쳐나는 데 외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도 이런 모든 정보를 섭렵해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자신이 ‘아티스트’이기에 앞서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에는 늘 ‘실용성과 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제 개인적인 작업에서는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디자인이 재미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파인 아트(fine art)랑 다를 게 없죠.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재미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려면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라는 어느 유명한 디자이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인 작업이 아닐 때 디자이너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그만큼 그 물건(또는 디자인)이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의 생각만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좋아할 그 무엇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의 장난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곁에 두고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에게도 처음에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디자이너로서 위치와 개인적인 작업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위치를 유연하게 오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자신이 디자인한 것이 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해, 그것이 수익원이 되는 것이지만, 상당수의 경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 작업과 공적인 작업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능력은 필수라는 것.

그런데도 굳이 자신 앞에 붙은 많은 수식어 중에서 하나를 붙이라면 ‘토이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쓰고 싶단다.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관객 지향적인 단어가 토이 디자인이라면, 아무래도 장난감이라는 단어가 개인적으로 꾸준히 진행할 작업에 가장 어울리는 모양이다. 거기다 장난감은 재미를 보장하는 단어가 아닌가.

어디서 작업 아이디어를 얻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작업 아이템은 도처에 널려 있단다. 그래서 그는 생각이 날 때마다 기록하는 버릇이 있다.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접목해보기도 하고, 청계천이나 용산 쪽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고 유용한 부품들을 찾아보며, TV를 보는 순간에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기도 한단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하는 <인터뷰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는 그는 내가 직접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 물어본다는 발상의 전환이 참 재미있단다. 인젠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그에 대답하는 작업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며 웃는다. 올 4월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 <Made in Korea>에 선보일 작품도 관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

“폐점하는 독일의 한 백화점에서 총 30명의 아티스트, 사진작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전시를 해요. 공간에 맞춰서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연구하는 작품들로 구성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강슬기는 기존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가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것은 바

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또 다른 나잖아요. 신용카드 고유 번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단지 물건을 사고 금액을 지불하는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무의식을 그 카드만의 고유한 ID로 비주얼을 사용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긴 시간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처음에 그에게 던진 질문이 생각났다. “그래픽에서부터 인터랙티브 디자인까지, 그리고 그중에서 또 토이 디자이너로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직함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의 포문을 연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질문인 것 같다. 물론 그는 많은 직함 중 굳이 하나를 고집하자면 ‘토이 디자이너’라고 불러달라지만,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 그 직함이 무슨 상관인가 싶다. 그의 개인적인 작업과 공적인 작업, 과거의 작업, 미래의 작업들을 나누어 그의 현재를 설명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리고 현재의 작업에 맞춰 강슬기를 설명한다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재미있는’, ‘호기심 많은’, ‘유연한’, ‘전복적인’ 그리고 ‘무엇인가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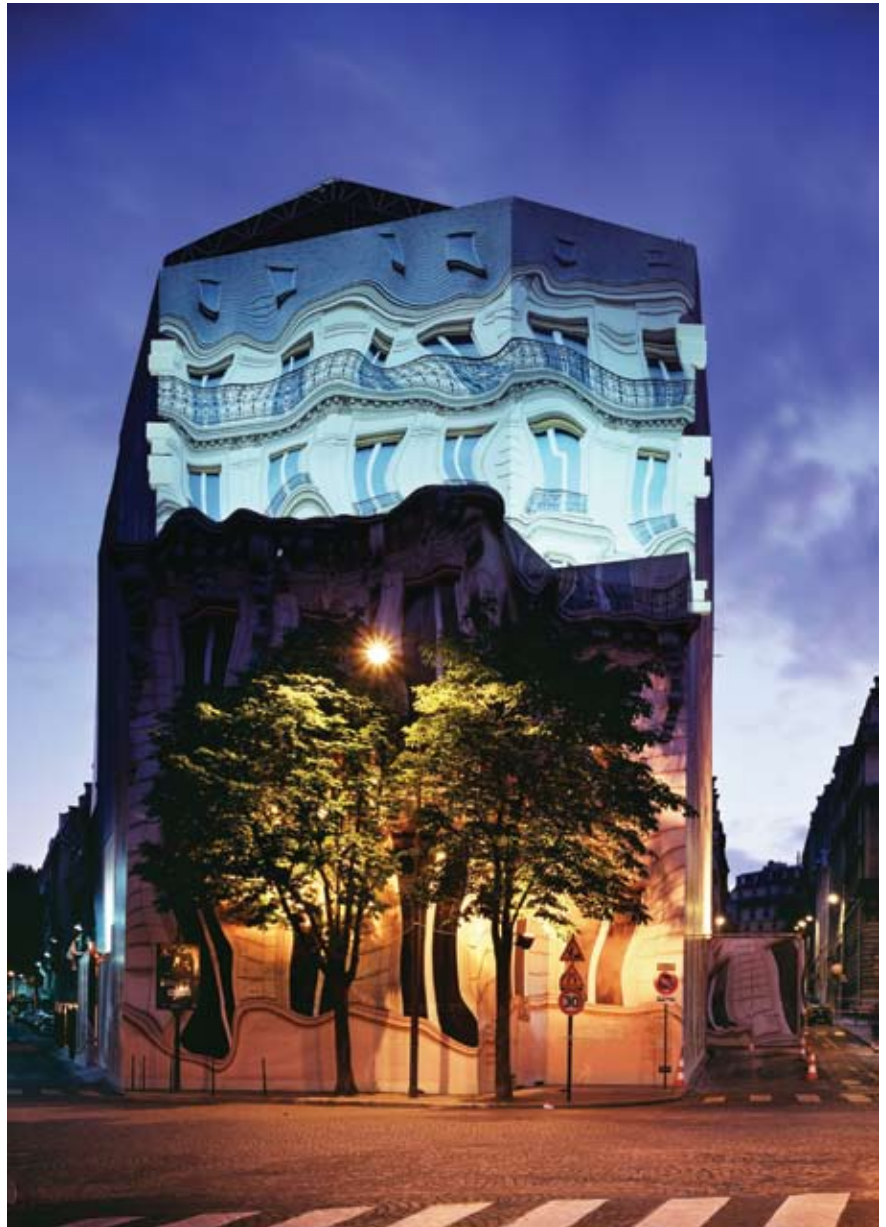
취재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정강

벽화와 가림막의 숨겨진 마법

유럽의 공공 미술



Melting 2008, Chromogenic Print 153cm x 122cm, 프랑스 파리 조르주 생크의 가림막

유럽의 대도시를 걷다가 가끔씩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는 위트 넘치는 현상을 보고는 감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막다른 골목길의 대형 벽면에 원근법과 트롱프뢰이유(trompe-l'oeil : 현실로 착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그림)를 이용하여 재현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재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트롱프뢰이유 벽화는 이탈리아에서 발전하여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 텅 빈 대형 벽면을 이용한 공공 미술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 걸음 진보해 다시 공사장의 가림막으로 재탄생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삭막한 공사장의 모습을 예술적 감각이 살아 있는 벽면으로 탈바꿈시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벽화로 매력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공공 미술

유네스코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Lyon), 이곳의 오래된 거리 곳곳에 산재해 있는 트롱프뢰이유 벽화들은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곳의 거리 벽화 역사는 멀리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로마시대 프레스코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1662년부터 1675년에 토머스 블랑셰(Thomas Blanchet)가 시청 전면에 그린 신화적 풍자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후 도시의 이런 전통은 1930년대 우체국 건물, 성당, 증권거래소 등의 공공 건물에 리옹의 영광이나 번영, 주변에서 생산되는 보졸레 와인이나 실크 등을 주제로 루이 부케(Louis Bouquet), F. 파르제오(F.Fargeot)와 같은 당시 유명 작가들이 벽화를 그리면서 더욱 발전했다. 현재 리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벽화들은 리옹의 역사적인 인물 30여 명을 그린 벽화, 1,200㎡ 크기로서 유럽 최대의 트롱프뢰이유 회화를 만들어낸 카누츠 벽화(canuts' wall-painting), 500㎡에 그린 165 명의 운동선수 모습을 재현한 벽화들로 이들은 모두 도시의 명물이 되며 관광 수입의 증가에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에 리옹에서는 공공 성격을 띤 새로운 150여 점의 벽화들이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왔으며 새로운 개념의 야외 미술관인 토니 가르니에 야외 미술관(Tony Garnier Urban Museum)이 리옹에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마도 이 미술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와 함께 호흡하고 발전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곳일 것이다.

1920~1930년대 노동자들을 위해 리옹의 동쪽에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가 건축한 시영 아파트 외관 곳곳에 1983년부터 단체나 지역 예술가들이 이곳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고, 1988년에는 6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결성한 '시테 드 라 크레아시옹(Cité de la Création)'이라는 단체 주관으로 25개 동 5,500㎡ 벽면에 모두 벽화를 그려 넣음에 따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먼지와 소음을 막는 단순한 기능의 공사장

가림막에서 진화한 공공 미술

도시를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변형해나가는 공간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곳곳에서 재건축, 보수, 신축 현장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사장의 가림막, 방진막들이 먼지나 분진, 소음 등을 막기 위한 단순한 기능적 속성이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가림막 자체를 캔버스 삼아 미적인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부가적 속성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즉 디지털 출력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산업 자본의 투자가 삭막한 공사장에 판타지와 같은 미적 기능을 부여해줌으로써 성공적인 공공 미술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최근 파리, 로마, 베니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런던, 버밍엄 등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공사 진행 중인 실제 건물을 대신하여 그 건물 자체의 이미지들을 실물 크기로 재현함으로써 광고 효과 및 주목 효과와 함께 사람들에게 환상과 같은 '일루전(Illusion)'을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사진과 같고 또는 그림과 같은 '환영(일루전)'의 유행 소재는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천이나 금속, 유리 등의 공업적 재료로 만든 인공적인 산물들이지만 이 속에서 시각적, 광고적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예술적, 디자인적 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렇게 포장된 건물은 설치 예술가 크리스토(Christo)가 건물을 천으로 씌움으로써 보여준 환영을 한 단계 뛰어넘어 정갈하게 디자인된 산업화의 또다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유럽의 공공 미술

른 상징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술적 방진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기획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예산과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지자체 기관 등의 협력 여부가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이다.

한편, 3년여 동안 개·보수한 영국 버밍엄(Birmingham)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몇 백 미터에 이르는 타운홀 전체 360도를 시청 이미지로 포장하였다. 이것은 버밍엄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었고 이를 발판 삼아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게 된다.

이후 버밍엄 시 위원회(Birmingham City Council)는



Displaced Space 2006, Chromogenic Print 117cm x 147cm, 프랑스 리옹의 벽화

클리어 채널(Clear Channel)과 같은 대형 광고, 기획사와 손잡고 도시 내 개·보수하는 건물들을 건물 이미지 자체로 재현해내는 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 제2의 도시인 버밍엄은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도시로서 과거 산업화의 궤적과 함께 새롭게 현대 문화적 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듯 보인다.

또한 파리의 대표적인 변화가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조르주 생크(Georges V)에는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초현실적인 건물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조르주 생크 39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보수공사를 위해 포장된 가림막이었는데 실제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의 형태가 녹아내리는 듯 꼬불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마치 달리의 초현실 회화를 연상케 했다. 이 건물은 예술가와 가림막 시공 업체 전문가, 그리고 가림막 제조업체가 함께한 공동 프로젝트로 도시의 공사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공 미술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공공 미술, 은밀한 마법의 힘

얼마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형 공사장에서 흔히 보이던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이나 거대한 시공사의 로고 또는 원색의 비닐로 촌스럽게 만들어진 가림막 대신 유명 예술가들의 그림이나 사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설치미술 등을 시도해 점차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대문, 동십자각, 덕수궁, 경복궁, 명동성당, 남대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가림막들은 문화적인 과거의 자취와 마천루의 고층건물로 상징되는 이미지의 간극을 예술로써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비극적인 참사로 다시 탄생할 운명의 남대문 가림막이 과거의 상흔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조각보같이 누덕누덕 기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의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상상을 해보자.

아니면 프랑스 리옹의 토니 가르니에 아외 미술관처럼 한때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표 상징물이었지만 지금은 흉물스럽게 변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미술관으로 꾸미는 상상을 해보자.

복잡한 도시 계획 속에서 인간과 공간이 함께 미적으

로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공공 미술, 공공 디자인의 은밀한 힘인 것이고 현재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 미술인 것이다.

글 및 사진 | 한성필(파리 통신원)

중앙대 사진학과 학사(BA)와 영국 킹스톤대학교와 런던 디자인 뮤지엄의 공동 프로그램인 큐레이팅 컨템포러리 디자인(Curating Contemporary Design)의 석사(MA)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개인전과 각국의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거쳐 현재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1년간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의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이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007년 갤러리 잔다리 (서울)에서 있었던 <Façade: face_cade>과 2008년 세오 갤러리 (서울)에서 있었던 <재현 : 제현 (再現 : 製現)> 전시를 통해 벽화와 방진막에서 보여지는 회화와 사진의 재현, 이미지와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각 이미지 전시로 풀어냈다.



La vie est belle 2006, Chromogenic Print 152cm x 122cm, 프랑스 리옹의 벽화



Neo-city 2006,
Chromogenic Print 117cm x 136cm,
영국 버밍엄 타운홀의 가림막

본 꼭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iverse City

서울은 행운의 도시다. 당대의 어느 도시도 도시라는 경계 안에서 서울만큼 활동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다. 서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단연코 가장 활발하고 1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의 기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장소들이다. 나는 을지로와 종로, 신당, 충무로, 동대문을 가면 놀랍고 즐겁다. 이 지역들은 산업이 번성하고 제조업과 무역의 이점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이다.

을지로 3가의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가면 온갖 종류의 기계 부품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 못 만들어내는 건 없다. 종로 5가의 미로 같은 길을 헤매며 형형색색의 LED조명 샘플과 실험실에서 쓸 법한 유리 시험관을 부는 이들로 가득한 골목길을 쏘다녀보라. 신당의 식자재상들과 채래시장을 탐사해보는 건 어떨까. 충무로에선 아주 소규모의 명함 인쇄소들과 방 하나 크기의 하이텔베르그 CMYK 인쇄기들이 늘어선 길을 배회해보라. 동대문 시장에서 몇 시간 구경을 하거나 한밤중에 디자이너스클럽의 도매상들을 보면 패션에 대한 창의력이나 욕구를 깨닫기도 한다.

나에게 있어 이러한 것들은 서울에 독특한 맛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시드니, 런던에서 생활했고 홍콩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나로서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서울 같은 도시가 갖는 진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이미 강북의 역사적인 명소들, 남산과 한강의 랜드마크들, 강남의 현대적인 시끌벅적함이 있는 이 도시를 완성시킨다. 디자인 일을 하는 예술가로서, 이처럼 활력이 넘치는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을 끈다. 다른 국제도시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의 주방용품 시장인 가파바시나 아키하바라, 츠쿠지 어시장, 홍콩 성완과 그레이엄 마켓의 다채로운 건어물 상점들, 런던의 캠든&보로 농산물 시장처럼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가벼운 상업적, 산업적 명소가 있는 도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은 그런 장소가 많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가까이서 살펴보면, 을지로 등지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물건들은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심한 디테일, 관습들, 그 안에 담긴 문화들이야말로 그 물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지역은 도시라는 한 기계의 부품과도 같다. 그 도시는 하나의 잘 짜인 기계로써, 불행히도 다른 도시의 거주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 예를 들어 우유가 어디서 나는지 전혀 모르는 도시 아이의 전형적인 이야기처럼-을 도시민이 쉽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길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이토록 놀랍고 풍부한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매력 요소가 될 것이다.

어느 도시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하나의 도시를 '흥미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에밀 고(Emil Goh)는 호주 출신 아티스트로 홍대 쌈지 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아시아링크 아티스트로 처음 참여했다. 현재 한국에서의 창작 활동을 위해 호주 문화원의 두 번째 지원을 받고 있다. <Theme(NY)> 매거진의 서울담당 디자인 에디터이며 압구정 세컨드 호텔의 디자인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건국대 실내디자인과의 객원 평론가이자 경원대 산업디자인과의 객원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Emil Goh is an Australian artist who first arrived as an Asialink Artist in Residence at Ssamziespace in Hongdae. He is currently on his 2nd Australia Council grant to create art in Korea. He is the Seoul design editor for Theme magazine (NY) and is a contributing designer at Second Hotel Apgujeong. Emil Goh also guest critiques at Konkuk University Interior Design Dept. and guest lectures at Kyungwon University's Industrial Design Dept.

Diverse City

Seoul is very lucky. No other contemporary city in the world enjoys the diversity of activity within its city limits as much as this one. By far & large, my favorite parts of Seoul are the most active ones, those integral to the functioning of a metropolis of 12 million. I am amazed and delighted with the areas of Euljiro, Jongno, Sindang, Chungmuro & Dongdaemun where industry thrives and where you can witness the beauty of manufacture & trade before your eyes.

Walk down the narrow streets of Euljiro 3 ga and you can find any mechanical part you require or have virtually anything made. Lose yourself in the maze of Jongno 5 ga, strolling down the lanes full of rainbows of LED light samples & laboratory grade test tube glass blowers. Explore the restaurant supply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of Sindang. Wander pass the micro namecard print shops & room size Heidelberg CMYK printing machines in Chungmuro. Realise any fashion creation or desires after a few hours of browsing Dongdaemun Market or midnight wholesalers of Designers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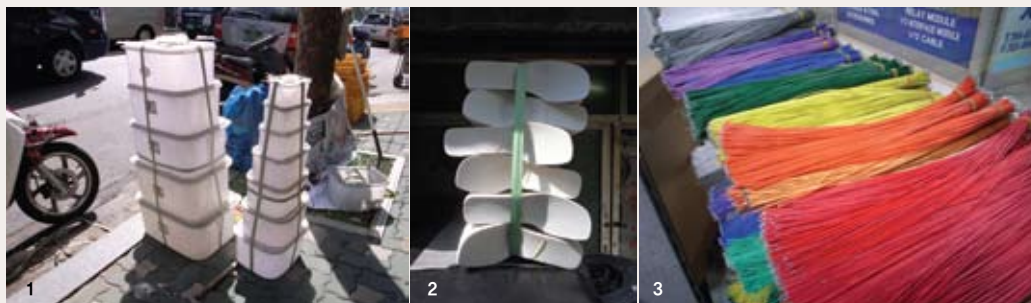
For me, these are the ingredients that give Seoul its unique flavour!

Having lived in Kuala Lumpur, Singapore, Sydney & London and having spent a lot of time in Hong Kong, it's easy to appreciate a city like Seoul for these very reasons. It completes the city which already has the historical attractions of Gangbuk, the landmarks of Namsan & the Han river, the modern hustle & bustle of Gangnam. Of course as an artist often working in design, these areas of activity are naturally of interest to me as it's something rarely seen in other international cities.

Fewer & fewer cities have interesting & attractive light commercial/ industrial attractions like Tokyo's kitchenware area of Kappabashi, Akhihabara & the Tsukiji Fish Markets, Hong Kong's colorful dried seafood stores in Sheung Wan and the Graham Street Markets, London's Camden & Borough Farmers Markets, while Seoul is so fortunate to have so many!

On closer inspection, it is so much more than the objects that are made or traded in Euljiro etc , it's really about the details, practices & the sub cultures that make them unique. Each quarter is like a part of a machine that is the city. It is a compact machine, where citizens are easily able to have first hand experience of aspects of life other city dwellers unfortunately don't, like the typical story of the city child who never knew where milk came from. In the long run, this amazing & rich mix of activity in the heart of Seoul, will be undoubtedly become a major attraction.

It is very easy to make any city 'beautiful' but it is much harder to make a city 'interesting'.



1, 2, 3 을지로, 종로, 충무로의 풍경들 One of the details from Euljiro, Jongno, Chungmuro etc.

있는 그대로, 서울

노 현 지



내가 서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살이 시작되었을 무렵이다. 도시라는 곳은 늘 내 나이 여자들과 화려한 빛깔, 네온사인 등으로 비유되는 장소이다. 나도 새로운 파르르 터지는 도시가 좋았다. 친구들과의 여행을 처음 시작 것이 바로 이쯤인데 뉴욕, 파리, 도쿄, 홍콩의 도시 골목을 왁자지껄 뒤지고 다니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 나는 분명 도시의 화려함을 보았지만, 닳아 빠져 빠그덕 대는 목조건물, 더러운 지하철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일상을 만났고, 그 엉성하기 짝이 없는 풍경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는 뽐뽐함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흘러 더 많은 햇살, 바람, 연애, 뒷골목, 쇼윈도, 가로등 불빛 때문에 비로소 점차 세련된 무엇보다 사람 내음과 흔적이, 삶이, 문화가 결국 도시의 매력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에는 어떤 향이 베어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내음을 느껴보기에는 서울은 너무 빠르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이는 것을 어색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십 년 전, 그리고 다시 그 시절에서 십 년을 거슬러간 서울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서울의 과거의 흔적은, 아픈 과거 속 우리를 끊임없이 개조하며 깡그리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이상스러운 행동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흔적을, 서울을 지워져야 할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끼도록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얼마 전 티브이에서 본 선풍기 아줌마를 떠오르게 한다. 성형중독자들은 상처를 통한 수치심을 탈바꿈으로 잊으려 한다던데, 상처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우리는 우리를 자꾸자꾸 지우고 싶나보다.

사진 속의 서울의 윤치 어린 맛을 그리워하는 지금에 우리는, 먼 훗날 우리가 그리워 할 문화를 거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부족해서 싫어서 끊임없이 달라지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찌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매력적인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직도 따라잡지 못한 외국의 그 무엇이랄기보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지 싶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지금의 모자란 나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가는 시간 속에 문화의 이름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서울은 2010년 디자인 수도가 되었고 본격적인 공공 디자인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일도 자꾸 낮설게 만드는 성형수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름답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태어나는 내 아이가 서울 속에서 엄마가 살아온 흔적과 체취를,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글 | 노현지(오픈리포터)

1981년 서울에서 출생해 예원예고를 거쳐 대학에서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서울시 아이덴티티에 관한 논문으로 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디자인팀장을 거쳐 현재 HS AD의 BTL CR팀 디자이너로 재직 중이다.

클라리넷과 12만원

서 정 옥

큰아들 방을 청소하다 또 구석에 처박혀 있는 클라리넷을 보고 한숨과 함께 나는 폴짝 주저앉아버렸다. 미국에서는 가족 생일마다 “생일 축하합니다아~”도 연주해주고 <해리포터> 주제곡을 연주하며 동네 꼬마 녀석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던 클라리넷이었는데, 매일매일 큰아들 손길에 입술에 빗을 발하던 클라리넷이었는데, 한국에 온 뒤로는 하루 이를 한 번 두 번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아예 방구석에 처박혀 있기 일쑤다. 아, 아까워라.

아들 녀석이 클라리넷을 처음 접하게 된 건 1년 반 전, 미국에서였다.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은 미술,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연극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때 아들이 선택한 것이 클라리넷이었다. 등교하자마자 매일 한 시간씩 클라리넷 레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클라리넷을 시작한 아들이었지만 학교에서의 수업만으로도 어느새 곡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연습해라...연습해라...잔소리하지 않아도 매일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연습하고 레슨하다보니 아들은 클라리넷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악기를 닦고 불어 보고 했었다. 그렇게 7개월여 정도를 더 보내고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학교 오케스트라부가 있어서 오디션을 보고 단원이 되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습은 2주일에 한 번꼴밖에 없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클라리넷 레슨을 신청했지만 겨우 일주일에 40분 정도였다. 그나마도 학원 스케줄이랑 겹치는 날에는 방과 후 레슨을 빼먹기 일쑤였다. 방법이 없다. 비싼 레슨비를 들여 음악학원에 보내든 선생님을 모시든 아니면 목이 터져라 쫓아다니며 연습해라, 연습해라 잔소리를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처박힌 저 클라리넷은 그

대로 먼지만 쌓여갈 것이다. 어찌지, 돈도 없는데...

청소년들을 가난과 마약, 패배감에서 구원해냈다는 베네수엘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 재단 출신의 유스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한다는 기사를 봤다. 행여나 꺼진 불씨로 남아 있는 아들의 클라리넷 열정이 다시 살아날까, 사춘기의 혼란이 자꾸만 반향으로 빠져 나오는 아이의 마음이 신선한 충격으로 정화될까 하는 마음에 아들의 손을 잡고 공연장으로 달려갔다. 학원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예매하지 못한 나의 잘못도 있지만 세상에나, 티켓 값이 12만 원이라니 (공연 한 시간 전이라 R석밖에 없었음) 여러 번의 쉼 호흡 끝에 3개월 할부로 티켓을 한 장만 끊어 아들을 공연장으로 들여보냈다. 나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나저나, 본전은 빼야 되는데... 줄면 안 되는데...



글 | 서정옥(오픈리포터)

한때는 MBC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하다가 세 아이를 낳은 후 주부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일 년 반 동안 미국 델러스에 머물다 작년 귀국했다.

3
March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시민축제지원사업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서울연극센터 행사정보
- 서울옐린극장 창동 공연정보

SUN	MON	TUE
1 ■ 어린이 연극 책 읽어주는 사다리 <빨간 부채 파란 부채> (3/1~4/30) ■ 실내악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단과 함께하는 금관악기의 세계 (3/1~12/31) ■ 실내악 화음 프로젝트 (3/1~12/31) ■ 음악 정가(正歌)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프로젝트-가객(歌客)과 취객(醉客)이 만난다 (3/1~12/31) ■ 음악 黑牛 김대환 Memorial Day	2	3 ■ 총체음악극 장루이 바로, 소녀의 이야기(3/3~4/5) ■ 뮤지컬 <라디오스타> (3/3~4/5)
8 ■ 실내악 비올라 4중주 콰트라브라체 4번째 연주회	9 ■ 뮤지컬 장애인을 위한 무료 수화 통역 공연 뮤지컬 <현정아 사랑해> (3/9~3/20)	10 ■ 실내악 서울목관5중주 제25회 정기연주회 ■ 음악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멘델스존 시리즈' (3/10~6/12)
15 ■ 연극 만들기 내 마음에 물주기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만들기) (3/15~4/20) ■ 음악 민속악회 시나위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시나위> ■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관람, 배우 및 연출가와의 대화 등	16	17 ■ 국내초연정극 <헨리 4세> 제1부 (3/17~4/5) ■ 양화 Extremely Ordinary (3/17~3/30)
22 ■ 목관5중주 여음 목관 5중주 연주회 ■ 실내악 체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 실내악 서울 윤이상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2회 및 제3회 (3/22~10/11)	23	24 ■ 공연 <발칸동물원> (3/24~4/12) ■ 독주 피아니스트 임미정의 '세상의 모든 음악' 시리즈 3 'Moussorgsky & Rachmaninoff'
29 ■ 실내악 제9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EUREKA Series 3' ■ 연극 <삼도봉 美 스토리> 관람, 배우 및 연출가와의 대화 등	30 ■ 연극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3/30~4/30) ■ 한국무용 2009 윤미라 무용단 <화첩-공무도花> 재공연 (3/30~3/31)	31 ■ 실내악 Exotic Mood ■ 영화 데이비드 린 회고전 (3/31~4/19) ■ 음악 서울모테트합창단 창립20주년 기념 연주 I / 바흐의 마태수난곡

WED	THR	FRI	SAT
4 ■ 전통(음악) 피리정악 그 아름다운 속으로 ■ 양화 디지털 리얼리즘- New Wave in Realism	5 ■ 영상설치 김민정 개인전 - 유연한 방 (3/5~4/10) ■ 음악 서울원드앙상블 35주년 기념음악회	6 ■ 양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인식 (3/6~3/16) ■ 실내악 비올라 4중주 콰르타브라체 4번째 연주회 ■ 연극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3/6~6/7) ■ 무용 <사구(砂丘)의 노래> (3/6~3/7) ■ 국악 김혜란이 걸어온 소리인생 소리극 '배따라기' (3/6~3/7)	7 ■ 행사성 사업 삼각산 비둘기 타고 흐르는 문학 (3/7~10/24)
11 ■ 국악 꽃빛 사랑 그릴지요?	12 ■ 정극 의자들 (03/12~4/5) ■ 사진 강홍구 개인전 <사라지다-은평 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3/12~5/9) ■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3/12~3/29) ■ 무용 춤과 함께한 73년 '명가 강선영 창작춤극' <초혼 2009> (3/12~3/13)	13	14 ■ 가악/독주 윤지원 오보에 독주회 'Oboe & String'
18 ■ 전통공예 서울무형문화재 작품전시 (3/18~3/24) ■ 회화 한국 미술의 오늘 전 (3/18~3/24) ■ 독주 피아니스트 이해전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 전곡 연주 시리즈 8 ■ 음악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 천지창조	19	20 ■ 창작극 <춘풍의 처> (3/20~4/5) ■ 무용 제12회 창작발레 신인안무가전 (3/20~3/21) ■ 실내악 리히트 감머 앙상블 제2회 정기 연주회 ■ 음악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기획공연 <소리연가> ■ 회화, 사진 진유영 개인전 (3/20~5/17) ■ 공예 아름다운 상추 (3/20~3/29) ■ 다원예술 indie root -1st respect (3/20~4/12)	21
25 ■ 관현악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 '팝스 콘서트' (3/25~4/29) ■ 사진영상 키미아트 사진, 미디어아트 기획전 (3/25~5/18) ■ 양화 미정 (3/25~3/31)	26 ■ 무용 Images 飛天四神舞 (3/26~3/27) ■ 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27 ■ 영화 인디다큐페스티발2009 (3/27~4/2) ■ 실내악 콰르텟엑스의 베토벤 백신 (QUARTET X presents BEETHOVEN VACCINE) (3/27~12/18) ■ 무용 김충한무용단 창작무용극 <張禧嬪> ■ 다원예술 <페스트벌 봄 서울 2009> festival bo'im seoul 2009 (3/27~4/18)	28 ■ 발레 평화어린이발레단 제2회 공연 (3/28~4/25) ■ 음악 구로구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버드나무 윈드오케스트라 음악여행 (3/28) ■ 다원예술 동춘서커스 -new뉴 흥길동 (3/28~5/20)

SFAC News

2009년 서울문화재단의 정기공모지원

심사 과정에서 결과 발표, 앞으로의 계획까지

지역협력형사업 이관 이후 첫 번째 정기공모사업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이 2009년도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협력형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울문화재단 및 15개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지역협력형사업의 이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역할이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되었으며, 2009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지원 규모 또한 전년 대비 86억 원에서 약 18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두 달여에 걸쳐 2009 정기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술정책기관으로서의 서울문화재단의 위상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심사도 더욱 신중하고 세밀하게 진행했다. 모든 지원사업을 심사위원이 꼼꼼히 볼 수 있는 1차 가택심사로 시행하였으며, 심사위원은 분야별 3~5인의 전문가로 총 8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협력형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공모 심사위원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과 '예술표현활동지원' 심사에 장르별 1명 이상을 포함(총 6명)하였다.

2009 정기공모지원 최종 결과 발표

이번 2009년 정기공모지원은 100억원 예산으로, 해당 4개 사업은 '생활속예술지원', '시민축제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이었으며, 특성화지원은 약 80억원 규모로 6개 지원사업이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 정기공모지원에는 총 2,561건이 지원 접수 되었으며, 심사 결과 접수 건의 35%인 887개 사업이 결정되어

지난 1월 23일과 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장르별로는 연극 113건:20억원, 무용 65건:11억 5,000만원, 음악 173건:16억원, 전통(국악 포함) 192건:18억 4,000만원, 시각예술 228건:15억 5,000만원, 문학 20건:1억원, 문화일반(다원예술 포함) 72건:7억원, 축제 24건:4억 5,000만원이 선정되었다.

‘생활속예술지원’은 자기자본비율 50% 이상의 단체를 선정하였고, 사업 특성상 예술가 개인보다는 시민이 함께하는 사업목적에 충실한 작품 208건을 선정하였다.

‘시민축제지원’은 타 분야와 달리 사업 규모가 광범위하여 지원사업을 한 개 분야로 구분, 타 분야와 같은 집행 규정을 따르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축제는 어느 분야보다 시민과 예술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되어, 서울을 특성화한 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독립적인 지원사업으로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24작품이 선정되었다.

‘예술표현활동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총 1,536건이 접수되어 27%인 55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접수장르 중 시각예술이 49%인 757건으로 접수되어 재단이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을 다시 조정하여야 했으며, 그중 26%인 203건을 선정하였다. 한편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과 ‘예술표현활동지원’의 연극 분야 선정작 94건은 3월에 접수되는 공연창작활동지원사업(舊 사후지원)의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1차 서류심사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어 선택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은 505건이 접수되어 20%인 102건이 선정되었고 평균 지원액은 2008년 대비하여 2,2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 대비 선택·집중형 지원을 지향하며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시스

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부터 공연 개시 전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고 공연이 끝난 후 공연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분할로 지원단체의 사업수행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원단체 대상 선정자 간담회 개최



한편 최종 선정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선정자 간담회를 장르별로 총 7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원금 집행절차 및 사후평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원단체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리로, 선정단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원금 청구서와 정산서도 공통양식으로 단일화 및 간소화하여 안내하였다.

3월 이후 약 80억 원 규모로 6개의 특성화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stac.or.kr) 예술 지원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국악)	시각	문학	문화일반 (다원예술)	축제
생활속 예술지원	신청내역	건수	49	20	74	87	65	51	115	
		금액	473	259	785	847	676	454	1,084	
	선정내역	건수	19	11	33	45	25	20	55	
		금액	100	50	140	205	100	105	250	
시민축제 지원	신청내역	건수								55
		금액								3,262
	선정내역	건수								24
		금액								450
예술표현 활동지원	신청내역	건수	171	87	242	279	757			
		금액	5,688	2,617	3,142	5,907	9,941			
	선정내역	건수	66	35	120	129	203			
		금액	996	534	1,000	1,200	1,450			
무대공연 작품제작	신청내역	건수	179	82	86	77			81	
		금액	10,681	4,730	3,591	2,526			4,521	
	선정내역	건수	28	19	20	18			17	
		금액	946	575	469	442			458	
총합	신청내역	건수	399	189	402	443	822	51	196	55
		금액	16,842	7,606	7,518	9,280	10,617	454	5,605	3,262
	선정내역	건수	113	65	173	192	228	20	72	24
		금액	2,042	1,159	1,609	1,847	1,550	105	708	450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앞으로의 방향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개념에 한정하기보다는 '서울'의 문화재단이라는 정체성을 유지 및 강화하는 대응적 차원에서 '수도'라는 상징성에 부합하는 지원프로그램을 가꾸어나갈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지역 이관 이후 처음 시행한 2009 정기공모 '예술표현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이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학을 비롯한 각 장르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 등 타 지역재단이 '지역적 제약'을 신청프로그램과 신청자(소재지)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반해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거주 소재지의 제약 없이 전국 각지의 모든 예술 수요자들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봄축제 소식

자원활동가 500여 명 모집 및 공식 명칭 공모

서울문화재단 축제사업본부는 5월 2일(토)부터 5월 10일(일)까지 열릴 예정인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봄축제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약 500여 명으로 모집분야는 사무국지원, 현장지원이며,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거리홍보), 종합안내소 활동,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축제사무보조, 자원활동가 행정지원 보조, 행사장 질서 유지, 시설관리, 행사운영보조 등 다양한 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월 9일부터 리더 및 일반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며, 하이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리더에 한함)을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축제 기간 내 전일 참여 가능자, 하이서울 페스티벌 자원활동가 경력에 있는 자를 우대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봄축제 자원활동가에게는 식사, 행사보험 가입, 자원활동가 휴식공간과 더불어 자원활동 인증서, 유니폼(티셔츠), ID카드, 축제 기간 내 활용 가능한 소품과 함께 우수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표창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자원활동가 모집과 동시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원활동가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을 함께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서울', '하이서울페스티벌', 그리고 '자원활동'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활동가 온라인 신청 시 명칭공모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축제사업본부 손정미(02-3290-7166)에게로 문의하면 된다.



준비 과정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프리 페스티벌(Pre-Festival)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봄축제 시민공모 진행

축제의 상징 디자인부터 축제를 알리는 홍보까지 전 제작 과정을 공개, 열린 제작의 기틀을 마련할 이번 시민 공모프로그램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시민이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는 3월 5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하이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탈 디자인 공모〉 공모 기간 : 3월 5일~25일

축제의 상징인 '서울탈'의 콘셉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공모로 관련 미술학과 학생을 비롯하여 일반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서울성과 역사성을 표출함과 동시에 전통에 입각한 '서울탈'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600만 원의 상금과 표창장이 수여된다. 축제 기간에 탈로 제작해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러분 콘서트〉 공모 기간 : 3월 5일~25일

다양한 기부행사가 이어지는 청계광장에 오를 시민 예술가를 모집한다. 재능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출연진은 공연 출연을 통해 재능기부자로서 나눔 행사의 후원자가 된다. '직장인밴드', '신동무대', '주부가요제'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별 공연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난장〉 공모 기간 : 3월 5일~25일

축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퍼레이드인 '꽃분홍길'에 참여할 타악 및 풍물패의 사전 경연으로,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팀에게는 창작지원금(출연료) 및 표창장을 수여한다.

〈꽃분홍 원정대〉 공모 기간 : 3월 5일~25일

춤으로 축제를 알릴 홍보대사를 찾는다. 지난 축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봄바람댄스'를 축제 시작에 앞서 서울 전역에서 공연할 재능 있는 댄서를 선발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간단한 오디션과 연습 기간을 통해 게릴라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출연료와 표창장을 수여한다.

서울열린극장 창동, 주부들을 위한 클래식 무대 마련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오는 3월 26일 오전 11시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콘서트〉를 진행한다. 오전 11시쯤 열리는 공연을 일컫는 브런치 콘서트의 주 타깃층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비로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주부들로, 분주한 하루의 시작을 잠시 뒤로하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있다. 또한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친절한 해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만 7세 이상의 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봄가을, 연 2회 무대에 오른 브런치 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홀수 달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열린극장 창동 홈페이지(<http://www.sotc.or.kr>) 또는 02-994-1465로 문의 가능하다.

서울연극센터가 준비한 3월의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는 3월에도 두 차례 걸쳐 대학로연극투어를 진행한다. 3월의 첫 번째 대학로연극투어는 오는 3월 15일(일) 12시 30분 서울연극센터에서 연극배우 오지혜의 사회로 진행되며, 2월 16일(월)~3월 1일(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에서 참가 이유, 인원(1인 동반 가능, 본인 포함 2인), 나이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선정자 발표는 3월 2일(월)이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3월의 두 번째 대학로연극투어는 오는 3월 29일(일) 12시 30분에 진행되며, 3월 2일(월)~3월 15일(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선정자 발표는 3월 16일(월)이다.



3월의 첫 번째 대학로연극투어 프로그램

서울연극센터와 만나기 : 서울연극센터 및 프로그램 소개

연극인과 만나기 : 나의 연극 그리고 대학로 -배우 장영남

대학로와 만나기 :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

연극과 만나기 :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관람, 배우 및 연출가와의 대화

3월의 두 번째 대학로연극투어 프로그램

서울연극센터와 만나기 : 서울연극센터 및 프로그램 소개

극장 만나기 :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

대학로와 만나기 :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

연극과 만나기 : 연극 〈삼도봉 美 스토리〉 관람, 배우 및 연출가와의 대화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상반기 공연단 풀 공모접수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순회 공연단 풀(Pool) 공모접수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된다. ‘서울사랑의 문화나눔’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간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문화예술 일반 분야 단체를 구성,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시내 소외시설 및 서울시 주요 공공장소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면 회당 120만~18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재단에서 사업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홈페이지(<http://cafe.naver.com/shareculture.cafe>)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선정된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30개 공연단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보고 싶은 공연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함께 받을 예정이다. 서울 시내 소외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접수를 받으며, 순회공연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 제한은 없다. 2009년에는 서울 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 준공시설 및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순회공연을 시행한다. 희망공연 신청접수는 공연단 풀이 구성된 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 정기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수시접수를 계속한다.

신진 아티스트 발굴의 장 ‘서울거리아티스트’ 상반기 정기 오디션

우리나라 최초의 거리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서울거리아티스트’ 2009 정기 오디션이 4월 17일 서울문화재단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신진 아티스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본 오디션은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문화+서울〉오픈리포터 1기 모집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문화예술과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서울의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독자와의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에, **국내 오픈리포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오픈리포터 모집

기획 개요

- ▷ **꼭지명**: 오픈리포트 -서울 속으로
- ▷ **내역**: 2009년 신설되는 꼭지로서 서울에서 살아가며 서울의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구성, 매월 2명의 시민리포터 원고 게재
 -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행사 및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람후기
 - 사회 문화공연 전반에 대한 시민비평
 - 알뜰하고 기상천외한 문화생활 비법 및 노하우
 - 서울의 문화정책 및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및 건의
 - 기타 서울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어떠한 주제로든 자유롭게 의견 피력

진행방법

- 월 1회 정기 편집기획회의 진행예정
- 사전논의 후, 지정꼭지 취재 및 원고작성 진행
- 선정된 시민기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서울문화재단 기준에 의한 원고료 지급)

모집요강

- **인원**: 0명
- **지원자격**: 서울의 문화예술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사 기획력 및 기본 글쓰기 능력을 갖춘 서울시민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및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 2편
(※형식, 분량 제한 없이 작성하여 제출)
- **접수기간**: 2009년 3월 20일(금)까지
- **보내실곳**: smlee@sfac.or.kr(홍보마케팅팀 이승민 앞)
(※메일로만 접수 진행하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사절)
- **최종선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제출서류 미반환)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Brunch

Concert

w i t h N a n s e G u m

2009년 1,3,5,7,9,11월 마지막주 목요일 • 오전 11시
서울열린극장 창동

전석 | 10,000 원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02-994-1469

* 창동역 1번출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최 및 주관 | 서울열린극장 창동 후원 | 서울특별시 Seoul Metro 서울메트로 제작 | EURO-ASIAN CORPORATION

박 은 하

2007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졸업

2005 Queensland College of Arts - Griffith University, SAP과정수료(1년), 호주

개 인 전

2008 The Planarian Realm, 관훈갤러리, 서울

2007 Planarian Flood, 진흥아트홀, 서울

그 룹 전

2008 정형에 도전하다, 인터알리아, 서울

2008 제1회 경기미술제, 이영미술관, 용인

2008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과 내일, 나인갤러리, 광주

2008 자각과 충동-관훈 30주년 기획전-, 관훈갤러리, 서울

2008 A Midsummer Night's Dream, 그라우갤러리, 서울

2008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07 다색다감: 오색풍경展, 갤러리 잔다리, 서울

그 외

2009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NaT 2008 선정, 서울문화재단

2008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미술대전

2007 제2기 난자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서울시립미술관

2007 월간 퍼블릭아트 공모 선정 작가 (7월), 월간 퍼블릭아트



Brand-New Colony, on canvas & acrylic on wall, canvas size: 194X130cm/194X130cm(2pcs), 2008

흔히 지나치는 일상적 풍경은 거의 낭비에 가까운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 “새로운 식민지”를 감추고 있다. 목적 잃은 이동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캔버스 안에서만 맴돌 뿐이지만 전혀 낯선 광경은 아니다. 이는 이 풍경이 현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역사(歷史) 전체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목적을 향한 갈망은 계속된다. 이는 체계로부터의 탈출을 향한 욕망의 분출이며 바닥 깊숙이 숨겨져 힘을 잃어가는 인간 이상(理想)의 자신 없는 표출이다.